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41호
2022년 9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슬럼가에서 꿈을 설교합니다” 이태후(인문대 84) 동문의 빈민사역



이태후(오른쪽 원내) 동문은 필라델피아의 노스센트럴 슬럼가에서 19년째 빈민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다. 그는 왜 흑인 목사들도 기피하는 이곳에 스스로 들어왔을까. 희망이 없던 아이들에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다. <관련기사=2면>

동창회 기업 네트워크 결실 맺었다 텔로팜 현지법인 · 벤처투자도 성사

동문들의 창업과 벤처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미주 동창회 산하 기업가 라운드테이블(Entrepreneurship Roundtable)이 불과 5개월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냈다.

브레인 네트워크 위원장인 한홍택(공대 60 · UCLA 석좌교수) 박사는 서울대 공대 교수인 이정훈(공대 85) 동문이 창업한 텔로팜이 동창회의 도움으로 캘리포니아 현지법인(Telofarm USA)을 설립, 현재 20여 건의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역시 서울에 본사를 둔 박상래(공대 87) 동문의 스타넥스가 미주 동문의 벤처투자를 받아 미국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 박사는 “창업 또는 비즈니스 확장과 관련해 동문끼리 연계돼 성과를 거둔건 동창회 역사상 처음 있는 쾌거다”라며 “동문들끼리 경험을 공유하며, 조언, 나아

가 투자와 동업, 취업, 경영자문은 물론 사업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운드테이블은 매달 두 번째 수요일 오후 5시(서부시간) 김량국(사대 92, Oak Informatics 대표) 동문 주도하에 줌으로 열린다. 미주 동창회 홈페이지

(www.snuaa.org)에 접속, Entrepreneurship Network을 클릭하면 줌 링크가 나온다.

▲문의: 김량국(사대 92)

rkim@oakbioinformatics.com

<관련기사=8 · 9면>

제 28대 모교 총장에 10여 명 지원 오세정 현 총장은 내년 1월 31일 임기 만료

제 28대 모교 총장선출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총장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공개소견 발표회, 정책평가 등 절차를 걸쳐 10월

중순까지 총장선출을 마무리 짓는다.

오세정 현 총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 만료된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후보 지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연대 지원금 10개 지부에 배정 시카고 · 미시건 · 남가주 등 2만 달러

젊은 세대의 동창회 참여의식을 높이고 차세대 리더십 육성을 위한 관악연대 지원금 배정이 확정됐다.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 · 공대 61)는 지난 9월 8일 임원회의를 갖고 각 지부 동창회가 제출한 관악연대 활성화 방안

을 최종 심의, 시카고 동창회에 2,750 달러를 지원하는 등 모두 10개 지부에 2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시카고 지부는 네트워킹 컨퍼런스와 볼링 · 댄스 클럽, 야유회 등 친목모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워싱턴 D.C.와 뉴잉글랜드, 필라델피아 지부는 각각 2,500 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D.C. 지부는 동문들을 샬로스(00학번 이후)와 아크로폴리스(75~99학번), 마로니에(74학번 이전) 등으로 분류해 단

독방을 운영하는 등 소셜 미디어 활동을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뉴잉글랜드는 유학생 동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4월과 9월 야외 바베큐 행사, 단체방 운영 등에 지원금을 쓸 예정이다. 필라델피아는 관악세대가 주축이 된 가을음악회 개최, 피크닉, 지역봉사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가주 총동창회에는 2,250 달러의 기금이 배정됐다. 관악 골프대회와 해골잔치, 바베큐 파티 등을 위해 지원금이 쓰여진다.

올해 처음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지부 인준을 받은 미시건은 10개월에 걸쳐 K-Culture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해 2,000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미네소타는 유학생/동문 세미나와 선후배 소그룹 활동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00 달러가 지원된다. 북가주는 동문 네트워킹과 그룹 피크닉, 동문 소모임을 갖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역시 2,000 달러가 책정됐다.

시애틀 워싱턴 지부는 ‘나서자’ 모임과 자녀 교육 세미나를 개최해 관악세대의 동문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1,000 달러가 지원된다. 밴쿠버(캐나다)는 500 달러의 지원금이 배정된다. 80년대 이후 학번대를 세 그룹으로 나눠 별도 토론 모임을 갖는다.

<관련기사=16 · 17 · 18면>

동문가정의
‘우영우 신드롬’
<관련기사=4·5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폴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아버지 목사’라 불리는 이태후(인문대 84) 동문 갱 충격이 끊이지 않은 필라의 뒷골목에서 19년째 “이곳 흑인 빈민촌이 바로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태후 동문은 인문대 미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의 신길동 동천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 아버지의 헌신적인 목회를 보고 자라면서 ‘저런 희생적인 삶은 자신이 없다’며 목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미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과연 이 미학에 나의 삶을 바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됐고, 하나님께 나의 사명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계속 질문해야 했다.

결국은 학부 졸업후 서울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왔다. 그때만 해도 신학 교수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계획, 목회자로서 한국에 돌아가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등의 계획이 있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해 목사가 된 후 뉴욕에서 7년간 사역하던 중 “흑인 빈민가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을 먹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태후 동문은 이 말씀의 실천을 위해 흑인 친구 목사의 소개로 필라델피아의 노스 센트럴(North Central)이라는 빈민 지역으로 들어갔다.

극빈계층 주민

2003년이었던. 사역지로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가난하고 흉흉한 범죄도시, 주민의 90%가 흑인이고, 40%가 극빈자 계층,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총기 범죄 살인률이 높고 그의 바로 집 앞에서 총격살인극이 벌어졌던 노스 센트럴이 그의 사역지가 된 것이다. 그는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사는 동양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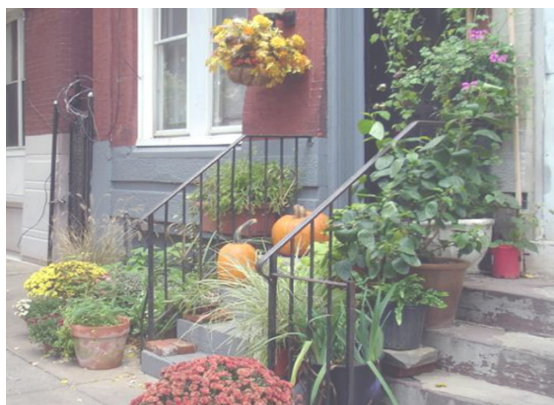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노스 센트럴로 왔지만 이 동문은 막막했다 -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위장한 경찰, 혹은 경찰 프락치일거라는 의심과 경계도 있었다.

마땅히 할 일이 없었던 그는 “우선 좋은 이웃이 되자”는 마음으로 집 앞거리 Uber 스트리트의 청소부터 시작했다. 청소 다음날은 똑같이 더러워졌지만, 그는 하루에 두번 세번도 거리 빗자루질을 했고, 그 길은 차츰 깨끗하게 정돈되어져 갔다.

깨끗한 거리에 마음이 움직인 이웃들이 빗자루를 들기 시작했다. 이 동문은 집 입구 계단에 예쁜 화분들도 놓았다. 이웃들이 화분을 구해달라고 해서 그들에게도 화분을 주어 집 앞계단들을 꽃으로 장식했다. 거리가 예전과는 달라졌다.

이 동문은 이 지역에서 빈곤의 대물림

을 보았다. 아이들은 미래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거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꿈을 꿀 공간도 멘토도 없었다.



이태후 동문은 인문대 미학과를 졸업한 목회자다.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유학온 것을 계기로 이곳 노스센트럴의 슬럼가에 정착, 빈민사역을 시작했다. 처음 한 일은 거리를 쓸고 아파트 계단 입구에 화분(사진 가운데)을 놓는 일이었다. 주민들의 ‘이웃’이 된 그는 내일이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이들의 친구이자 대부가 됐다.



처음엔 ‘경찰 프락치’로 의심 받아 매년 여름 캠프, 이젠 대학진학자도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기로 결심하고 방학때 집 앞의 길을 막아 청소년 캠프를 시작했다. 첫날 10명이 모이던 캠프는 3주가 지나면서 60명으로 늘어났고, 해가 갈수록 참여학생들은 증가해 150여명으로 불어났다.

청소년 롤모델

이와함께 이 동문의 주변으로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흑인 목사와 함께 교회도 섬기게 됐고(가끔 설교를 할 뿐이지만), 캠프

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들이 찾아왔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캠프의 학생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이들에게 새로운 꿈

입어보는 따뜻한 파커에 주민들은 감격한다. 어떤날은 집 앞에서 푸집한 갈비 파티를 열면서 이웃들을 먹인다.

이 동문은 동네 빈터의 버려진 건물에서 학생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시작해 아침 등교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도 제공하고 주민들의 커피 브레이크 공간으로 사용했지만 얼마후 건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됐다. 인근의 교회를 빌려서 방과후 아이들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9-13세 연령대

“아이들은 9살에서 13살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이때 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면 마약장수 형들에게 포섭이 돼 거리로 떠돌게 됩니다.” 그가 청소년들 케어 프로그램에 전력하면서 커뮤니티 센터 건축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이유이다.

그의 빈민가 사역이 알려지면서 각지역의 교회와 지역사회 단체들이 여름캠프에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이 동문의 헌신이 하나씩 결실을 맺으며,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미국내에 이렇게 선교할 지역이 많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서울에는 나이드신 이 목사의 부모님이 두분만 외로이 지내고 있다. 어머니가 위암수술을 하면서 부모님을 방문하고 못다한 효도에 눈물을 지었다. 병원에서는 자식들은 다 어디있느냐고 나무랐단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 목사가 자랑스럽다.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께 내어 드린 자식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 동문은 무거운 마음이지만 아버지 목사 부부를 뒤로 하고, 다시 필라델피아 그의 사역지로 돌아왔다. 그의 흑인 빈민가 사역은 올해로 19년째 이어지고 있다.

“흑인 청소년, 주민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꿈을 심어 줍니다. 가난한 주민들을 먹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현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가족으로 커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곳에서의 저의 사역입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목사님이 나를 믿어주어서 고마울 뿐입니다.”

“당신이 내 집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도 축복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는 목사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대학교를 나와 미국 필라델피아 흑인 빈민촌에서 가족도 없이 홀로 사역의 길을 감당하는 이태후 동문은 오늘도 노스 센트럴의 이웃들을 걸어가며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다.

취재=김인종(농생대 74)

‘홈커밍데이’에서 만나요 10월16일, 미주 동문 참가 크게 늘어



지난 2017년 제 38차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미주 동문들. 올해는 10월 16일 열린다.

제 43차 서울대 ‘홈커밍데이’ 행사가 오는 10월 16일(일) 모교 캠퍼스에서 열린다.

홈커밍데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대면 행사로 치러지는 것은 2년만에 처음이다.

행사 참석의사를 밝힌 미주 각 지부 회장단 및 동문들은 9월 현재 40여 명에 이른다.

미주 동창회 관계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참가인원이 40명을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홈커밍데이 참가비는 없으며 참석범위는 동문 및 동문 가족이다. 대학 측은 도시락과 함께 풍성한 고품추첨이 예정돼 있다며 미주 동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대학 측은 미주 동문들을 위해 14일(금) 특별 캠퍼스 투어를 제공한다. 버스를 이용해 규장각을 비롯 중앙도서관 관정관 등을 둘러본다. 규장각은 조선왕실 도서관으로 국보급 고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다.

한편 홈커밍데이 다음날인 17일(월)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5박6일 일정의 제주도 및 동해안 관광 투어가 준비돼 있다.

제주도 올레길, 석부작 테마파크, 서귀포 유람선, 주상절리대관광, 천제연 폭포, 용두암, 금릉석물원 등 관광명소들을 찾는다.

이어 부산에서는 용두산 공원,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부산영화제거리 등을

둘러본다. 최근 서거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 국민방문 중 생일상을 받아 화제가

된 경북안동의 하회마을도 찾는다. 하회마을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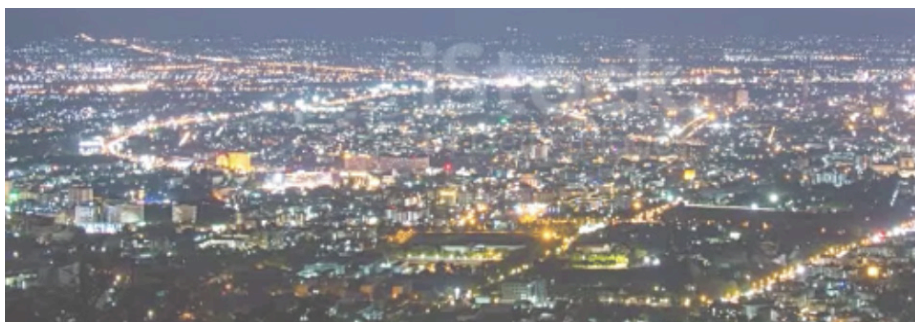
이번 여행에는 간염치료제 개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주중광(약대 60) 교수와 부인 허지영(화학과 60) 동문도 참가한다. 이외에도 서정주 동문 등 미대 61학번 ‘삼총사’가 의기투합, 고국방문에 동참한다.

이번 여행과 관련한 자세한 일정은 최진석(법대 64) 동문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213-321-6428

규장각 등 캠퍼스 투어도 제주도 동해안 관광 일정

구름에 가려진 한가위 보름달~ LA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장관’



구름낀 날씨 때문에 한가위 보름달은 볼 수 없었지만 그리피스 파크 정상에서 내려다 본 LA의 야경은 장관이었다. 남가주 산악회 회원들이 미리 준비해온 송편 약과 등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즐기고 있다.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남가주 산악회(회장 김동근·공대 60)는 매년 추석 그리피스 파크 정상에서 달

남가주 서울대 음대 정기 연주회 11월19일(토) 콜번대 지퍼홀에서

남가주 서울대 음대 정기 연주회가 오는 11월 19일(토) 오후 6시 LA의 콜번 음대 지퍼홀에서 열린다.

연주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만에 처음 대면 행사로 열린다.

이날 연주회에는 동문 합창단(단장 김병완·공대 58)도 함께 출연한다.

장진영(성악과 88) 동문의 지휘, 황만영(피아노 84) 동문의 반주로 열리는 공연에는 1부 순서에서 ‘Try to Remember’, ‘Autumn Leaves’,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어 2부에서는 ‘눈’(김효근 동문 곡), ‘첫사랑’(김

효근 곡), ‘강 건너 봄이 오듯’(임금수 곡) 등이 무대에 오른다.

소프라노 김주혜(성악과 05) 동문은 오페라 ‘파우스트’에 나오는 ‘Air des Bijoux’(보석의 노래), 테너 이규영(성악과 04) 동문은 ‘Una Furtiva Lagrime’(남몰래 흐르는 눈물)를 부른다.

이외에도 박종대(국악과 64) 동문의 대금 솔로, 제갈소망(피아노 02) 동문의 독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관련기사=11면>

▲문의: (562) 412-1910

취재=유혜연(음대 79·회장)

남가주 와이너리 테마 여행 10월8일, 솔뱅·올리보스 등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박제환·문리대 75)가 오는 10월 8일(토) 와이너리 테마 여행을 떠난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LA를 출발해 로스 올리보스의 와이너리, 솔뱅, 샌타바버라를 거쳐 LA로 돌아오는 당일 코스다.

박제환 회장은 “당일 여행이지만 와인 시음을 비롯해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동문들끼리의 소통은 물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어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남가주 총동창회는 노동절 연휴 2박3일의 비숍 캠핑을 기획했으나 코비드-19 등의 여파로 취소한 바 있다.

동창회 측은 버스를 대절할 단체관광이어서 동문들의 사전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마감은 9월 30일까지. 각 단과대 회장이나 총동창회에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50.

▲신청: snuasocal@gmail.com
323-229-3369(박제환)

맞이 행사를 갖는다.

지난 9월 10일에도 일행은 ‘쟁반같이 둥근달’을 기대하며 그리피스 파크를 찾았다. 그러나 달은 먹구름 사이로 숨어버려 이날 밤 내내 민낯을 보여주지 않았다. 김동근 회장은 달맛이는 어렵게 됐지만 산행을 하자고 제안해 회원들은 왕복 5마일의 ‘Hogback’ 트레일을 걸었다.

일부 회원들은 달 구경도 못하는데 왜 힘들게 산에 오르느냐며 볼멘 소리를 했지만 정상에 오르자 이내 환호로 바뀌었다. LA의 야경이 한 눈에 펼쳐진 것.

LA 산지 오래됐지만 이 같은 장관은 처음이라며 모두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불빛이 너무 강렬해 손전등이 없어도 산길을 걷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제영해(생과대 71) 동문은 “플래시라이트를 안 갖고 와 밤길 안전사고를 걱정했는데 구름없는 밤은 어둡지만 구름낀 밤은 이렇게 시내 불빛이 반사돼 밝아진

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흐뭇해했다.

정동구(공대 57) 동문도 “달도 없고 별도 없었으나 LA의 찬란한 야경이 달맛이 보다 더 아름다웠다”며 “바람도 시원하고 대화도 즐거운 산행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10여 명. 송편과 약식, 한과 등을 나눠 먹으며 추석 기분을 잔뜩 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당초 달맛이가 무리였다는 걸 알았으나 달 없는 중추절의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박진국(의대 65) 동문도 웃음꽃이 활짝 폈다.

그리피스 정상에서 동문들은 시티 야경을 보며 끊임없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다. 인간의 달 여행과 화성 탐사 등 우주의 신비에서부터 백두산 등반에 이르기까지... 하산길에 나선 회원들마다 한마디씩 했다. “둥근달이 뒀다한들 오늘 밤 야경만큼이나 아름다울까.”

취재=홍선례(음대 70)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 자폐 스펙트럼 자녀·손주 둔 가정들 속앓이 “동문끼리 온라인 커뮤니티 만들어 소통했으면”

L 동문은 20여 년 전 시민권자인 여동생의 초청으로 미국에 정착했다. 친정과 시댁은 한국서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이른바 ‘수퍼리치’다. ‘금수저’로 태어난 L 동문의 이민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에서 궁금증이 증폭됐다. “세상에 ~ 뜬금없이 웬 이민?”

그가 미국에 온 사연은 이랬다. 큰 딸의 장애가 알려지면 다른 자녀들의 혼삿길이 막힐 것을 우려해 이민을 택한 것. 큰 딸은 자폐 증상이 심했다. 게다가 지적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 외출은 꿈도 못꿨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교육기관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한국사회에서 큰 딸의 존재는 ‘숨기고 싶은 치부(skeleton in the closet)’였고 L 동문이 딸과 함께 이민행을 결심한 배경이다.

최근 종영된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요즘도 화제가 되고 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뿔별 그리고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법전을 통째로 암기해버리고 돌고래 박사가 되어버린 한 변호사 얘기다. 공교롭게도 극 중 캐릭터인 우영우는 서울대 출신으로 그려져 있다.

스타 배우가 없는데도 이처럼 큰 인기를 끌었던 데는 장애인의 성공 스토리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자폐 장애인의 생활을 정말 제대로 반영했느냐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엄혹한데 말이다.

서울대 동문들 사이에도 자녀나 손주가 자폐를 가진 가정이 적지 않다. S 동문은 현직 대학교수. 앞서 언급한 L 동문과는 달리 미국에 와서야 아들의 장애를 인지하게 됐다고 한다. 아이를 정규 클래스에서 다른 정상 아이들과 함께 키우고 싶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보내는 길 외엔 방법이 없었다.

S 동문은 현재 ‘이산가족’이다. 남편은 사업상 한국에 살고 있어 방학이 돼야 비로소 ‘완전 가족제’가 된다. 부모가 이혼

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를 가리킨다. “자폐인은 천차만별”이라는 극 중 우영우의 대사처럼 발병 원인도, 증세도 다 다르다. 자폐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다. 우영우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불리는 고기능 자폐, 즉 언어 장애가 없는 경우에 속하며 자

실제로 우영우와 같은 변호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플로리다주의 헤일리 모스는 세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았다. 부모의 헌신에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져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다.

동문들 가운데도 ‘자폐 변호사’가 있다. 비교적 경증에 속하지만 K 동문은 한국서 직장생활이 어려워 미국에 온 경우다. 남보다 뛰어난 기억력 덕분인지 미국서 가장 어렵다는 캘리포니아주 변호

세상을 떠난 뒤에는 누가 보살펴 주는가가 제일 큰 걱정거리라는 것이다.

C 동문은 딸이 한때 피아노에 뛰어난 솜씨를 보였지만 얼마전부터 흥미를 잃고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어 부모의 애를 태우고 있다. 한때 대학에도 진학했으나 사회적 관계를 하려하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그는 딸의 ‘노후’를 위해 은퇴도 미룬채 직장 다니고 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딸은 시설에 보내져 평생을 지내야할 처지다. 도저히 이같은 상황을 받아들이 수 없어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에 수용되면 개인 케어가 안되는 것은 물론 때론 과다 약물 투입 등으로 비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그래서 유산을 많이 남겨줘 딸이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사회복지에 관한 한 안전망이 비교적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 카운티 등 정부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의 이해속에 살아가는 이민자는 다른 고민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자폐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동문끼리만의 커뮤니티’가 아닌가 싶다. 자폐와 관련한 정보는 물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영화 ‘레인맨(Rain Man)’에서 ‘뻔질’ 동생 찰리(톰 크루즈)가 “이제 곧 다시 만날거야”라고 말하자 자폐증 환자 형 레이먼(더스틴 호프만)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 하나는 나쁘고, 둘은 좋아(Yea, one for bad, two for good)”. 영화가 주는 가장 큰 울림이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전해주는 명대사다. 동생 찰리도 그제야 형을 완전히 이해한 듯 답한다. “당연히 둘이 좋지.”

자폐아를 둔 동문들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싶다. 혼자 보다는 둘, 곧 여럿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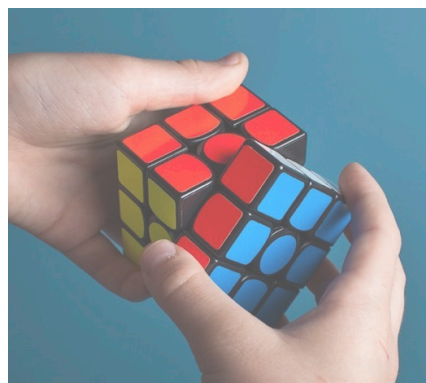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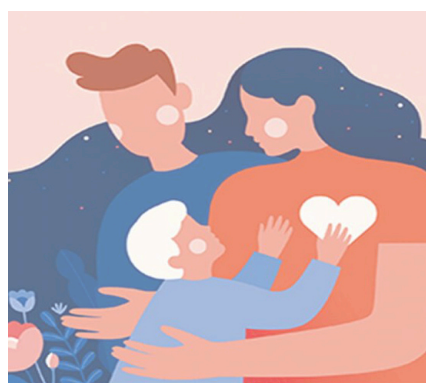
sujinyang2011@gmail.com

취재=양수진(간호대 80)

Nurse Practitioner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장애인의 성공스토리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지만 자폐인의 생활을 제대로 반영했느냐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자폐증 환자들은 드라마 속 캐릭터 ‘우영우’처럼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기도 한다.

‘남은 자녀 혼삿길 막힌다’ 남몰래 이민행도 ‘내가 세상 떠나면 우리애 누가 돌봐’ 걱정 자녀 ‘노후자금 마련’ 위해 은퇴 늦추기도

신이 목격한 장면을 사진처럼 기억한다. 최근 자폐의 원인을 발견하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알려진 뇌신경의 이상변이를 비롯해 분당 서울대 병원 연구그룹에서 신경변이를 일으키는 비암호화된 유전자를 발견하는 등 곳곳에서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금은 디지털 치료에 희망적 연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 자격시험에 합격, 주위에서 ‘남자 우영우’라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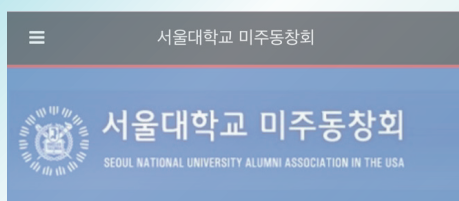
공인회계사인 P 동문은 아들이 다운신드롬까지 앓고 있어 요즘 우울감에 빠져 있다. 자신의 처지를 딱히 하소연할 곳도 없어 병어리 냉가슴 앓는 상황이다.

자폐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적 고민은 ‘내가 죽은 다음’이다. 지금은 부모가 케어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미주 동창회보 모바일로 보세요

최근 미주 동창회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면서 휴대폰 등 모바일에서도 동창회보 기사를 비롯한 동창회 알림, 서비스 등의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www.snuaa.org)에 들어가셔서 상단 왼쪽의 사이트 목록  을 클릭하시면 NEWS가 나옵니다. 미주 동창회보를 누르시면 지난 호(pdf file)가 연도별, 월별로 일목정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부(chapters) 소식과 한국 동창회, 뮤직 비디오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강병철 동문의역서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질병에서 축복으로 바꾼 100년 투쟁

강병철(제이슨 강·의대 85) 동문이 낸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In a Different Key, the Story of Autism)’가 최근 한국출판문화상 번역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자폐증의 발병부터 자폐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까지의 역사가 무려 864쪽에 걸쳐 펼쳐진다. 부제가 특히 눈길을 끌어들인다. ‘자폐는 어떻게 질병에서 축복이 되었나.’

원저자 존 돈반과 캐런 퍼커는 2017년 풀리처상 논픽션 부문 파이널리스트,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다.

강 동문은 서울대의대 출신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번역가 겸 출판사 경영을 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빛이 될 책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꿈꿀자유’라는 출판사를 차렸다. 의학서적을 주로 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10여 권을 내놨다.

저자들은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분노로, 그리고 항상 넘치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평범한 엄마와 아빠들의 목표는 두 가지다.

왜 자녀에게 자폐가 생겼는지 밝히고, 자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폐증은 1911년 스위스의 어느 정신과 의사가 제창한 용어로, 사회적 장애와 의사소통 장애, 활동장애 등 전반적인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붙여지는 병명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책은 이 세상에서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아갈 자리를 추구해온 역사가 곧 자폐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자신과 다른 소수를 받아들이고, 소수가 살아갈 자리를 만들고, ‘다

름’이 ‘열등함’이 아닌 보편적인 정신적 특성이라는 걸 깨닫기까지의 과정에 동참한 자폐인과 그 가족,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책은 자폐인이 사회에 부담을 주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절에 자폐인을 영원히 격리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살해한 경우도 있다고 밝힌다.

또 자녀를 차갑게 대하고 애정을 드러내지 않는 등 엄마가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폐증이 생긴다는 이른바 ‘냉장고 엄마’

비유가 한 때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고 전한다.

책은 “인간은 어떻게든 올바른 방향, 인간적인 길을 찾아왔다”며 “질병이자 저주였던 어

떤 상태가 축복의 대상으로 변해온 과정은 인간이 자기를 옹호만 편견과 차별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자신을 해방하는 역사”라고 강조한다.

강 동문은 2000년대 중반 제주도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던 시절말로 잘 나가던 개원의였다.

그가 병원을 접고 캐나다로 이민, 번역가로 변신한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큰 아이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는데 한국에서는 환자와 가족이 믿고 따를만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명색이 소아과 의사인데도 자폐에 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정신장애의 부모로서 자폐부모들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다.

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동시에 자폐부모들을 위로하고 싶어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를 번역해 출판했다고 털어놨다.



강병철 동문이 낸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무려 864쪽에 달하는 대작이다. ‘꿈꿀자유’가 출간했다.

정신질환 앓는 아들위해 이민 결심... 밴쿠버 정착

배우자 사별 후 치매위험 증가 이동영 동문 국제학술지 기고

노년기에 경험하는 배우자 사별과 치매위험 증가간 연관성을 뇌의 병리적인 변화를 통해 확인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동영(의대 86) 모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결혼 경험이 있는 61~90세 노인 31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다.

연구팀은 전체 연구 참여자 중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선정한 그룹을 배우자 사별군(59명)과 대조군(59명)으로 나눠 MRI와 PET 검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뇌위축 및 혈관성 변화를 관찰한 결과 배우자 사별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뇌 백질 변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

인지와 기억에 중요한 뇌 백질은 MRI 영상에서 뇌 중심부 옆으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다. 백질에 퍼진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 뇌 백질 변성이 클수록 치매와 뇌졸중 발병위험이 커진다.

연구결과 뇌 백질 변성은 고령에 사별을 겪은 경우 더욱 심해졌다. 치매와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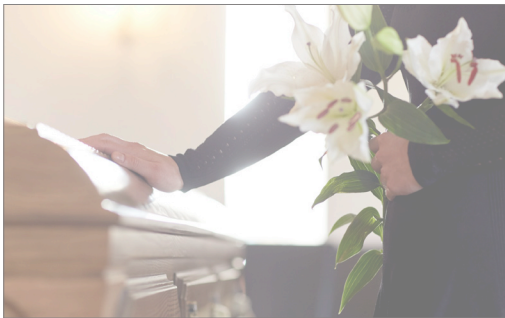
련된 인지기능 저하 현상도 배우자 사별군에서 두드러졌다.

그간 배우자 사별에 따른 스트레스가 우울증, 심혈관 질환, 치매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결론을 얻은 연구는 다수 있었다. 그러나 뇌의 병리적인 변화를 직접 확인해서 연관성을 확인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침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동문은 “사별경험을 제외한 혈관성 뇌손상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므로 이런 요인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노력이 사별경험과 연관된 치매 발병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 차원에서도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에 대해선 치매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정신의학 및 임상신경과학’에 실렸다.



음악이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 뇌를 활성화시켜 탁월한 효과

음악이 뇌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

콜롬비아 의대 뇌신경과학자인 올리버 색스 교수는 그의 저서 ‘Musicophilia’에서 “음악만큼 강력하게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없다. 음악은 우리를 진정시키고 활기를 주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뇌질환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발표, 관심을 끌었다.

지난 2017년 보건연구원(NIH)이 케네디 센터와 협력해 실시한 연구결과도 흥미롭다. 미국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피실험자로 참여한 이 연구에 따르면 플레밍이 노래를 할 때 뿐만 아니라 노래를 직접 부르지도 않고 노래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냈다.

실제로 음악을 환자 치료에 이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이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애리조나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으로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었던 개비 기포즈 전 하원의원이 음악치료를 통해 다시 말을 하게 되고 언어능력을 회복하게 된 것이 그 좋은 예다.

음악은 알츠하이머로 기억력과 언어 능

력에 문제가 생긴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매직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해 8월 열린 토니 베넷(95)과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공연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베넷의 마지막 공연이었다.

그런 베넷이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2016년이였다.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며 인지능력/기억력에 문제가 심해졌고 오랫동안 음악을 같이 해 온 동료들 그리고 같이 공연하는 레이디 가가조차 기억하지 못하다가 공연때 음악이 흘러나오자 너무나 또렷하게 레이디 가가를 기억해 냈을 뿐 아니라 멋지게 공연을 소화해 냈다.

음악이 가진 이 놀라운 능력, 알츠하이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음악 기억은 보존되는 것을 이용해서 치매 환자와 환자 케어에 적용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뇌에 좋은 자극을 주는 음악, 지금부터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듣고 나만의 뮤직 & 메모리 리스트를 만들고 친구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노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김왕도(공대 75) 교수의 페루 예찬기

“K-팝 · 기술 덕분에 대학서도 대우받고 지내”

UTEC에서 생체역학 강의, 영주권도 받아

김왕도(공대 75) 교수는 공학자로서는 드물게 생체역학(biomechanics)을 전공해 박사학위(리하이)를 받았다.

오레곤의 포틀랜드주립대와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학, 싱가포르의 난양대 등을 거쳐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 소재한 UTEC 공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생체역학 강의를 개설된 대학은 미국서도 드물고 한국서는 전무하다시피해 페루 대학에 정착하게 됐다.

김 교수는 지난 8월 오레곤주 동창회(회장 박희진 · 농생대 78) 주관으로 열린 서울대 포럼에 부인 김미원씨와 함께 나와 페루에서의 삶을 미주 동문들에게 소개했다.

- 편집자.



미국과 페루의 원주민들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됐을까.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인디언들은 백인들의 말살정책에 의해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페루의 원주민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페루에선 ‘부르고스의 법(Laws of Burgos)’이란 것이 존재했다. 인디언 원주민들을 학대하지 말고 자

었다고 한다. 1990년대에는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대통령에 당선돼 세계적인 화제가 됐었다. 그러나 부패혐의로 장기 수감되는 등 몰락의 길을 걸었다. 지난해에는 그의 딸 겐지 후지모리가 보수 쪽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선거에 나섰으나 진보쪽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했다.

요즘 페루에는 K-팝이 붐을 일으키고

의 오지 않는다. 그래서 리마 외곽쪽에서는 지붕이 없는 집들이 많다.

요즘은 K-푸드도 인기를 끌고 있어 현지인들을 고객으로 한 그로서리 마켓도 많이 생겨났다. 초코파이나 소주 등을 팔고 있어 적어도 페루에서 만큼은 한식의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페루는 특히 식문화가 발달돼 있는 나라다. 바다와 산, 밀림이 있어 식자재가 풍부하다. 감자만해도 수백 종류나 된다. 왕 옥수수는 내가 즐겨 먹는 간식거리다.

일반 서민들이 먹는 식사는 2달러만 주면 디저트까지 나온다. 그러나 중상층을 상대로하는 레스토랑은 서울의 강남 보다는 비싸다. 심지어 1인당 800달러나 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미술랭(매년 봄 발행하는 최고 권위의 레스토랑 안내서)이 선정한 세계 톱 10 레스토랑 가운데 2-3개는 페루에 있다. 페루의 식문화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만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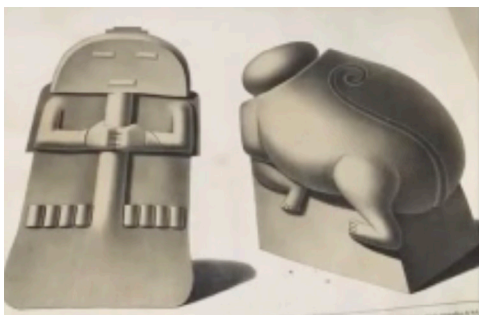
페루에는 일본의 식문화 영향이 매우 크다. 가장 널리 알려진 메뉴는 ‘세비체’다. 생선을 토마쥬 레몬즙으로 마리네이드한 사시미의 일종이다. 중국식당의 ‘차우파’(볶음밥의 일종)도 우리 입맛에 꼭 맞는다. 페루에서 세비체와 차우파를 주문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페루는 빈부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심한 나라다. 그러나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가톨릭 신앙 때문인지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일부 미디어에서는 페루를 고산지대에 갇힌 따위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못지않게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다.

골프장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페루에서는 카트를 타는 경우가 흔치 않다. 골퍼마다 전담 캐디가 따라 붙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또 실업자 구제를 위해 캐디를 고용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내가 아는 캐디는 유명 대학을 나왔는데 아들도 캐디로 일하고 있다. 캐디가 수입이 좋아 대물림을 해준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대학 측이 스폰서해 줘 페루 영주권도 땀다. 페루 대학에서 은퇴할 계획이다. 한국이나 미국으로 되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우리 부부는 페루에 정착해 살기로 했다. 그래서 스페니시를 열심히 배워 현지인들과 소통해 가며 지내고 싶다. 페루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페루 잉카문명의 발상지인 마추픽추. 잉카제국과 관련해선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글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굴된 유품 가운데는 기하학적으로 정교한 것들도 많다. 사진 아래 오른쪽은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UTEC 공과대학이다.

잉카제국의 아이콘 ‘마추픽추’는 ‘천국’

식문화 발달 ... ‘미술랭’ 등급 식당 즐비

“정말 살기 좋은 곳, 여기서 은퇴할 터”

유로운 존재로 대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법이다. 물론 가톨릭 신앙을 강제하기 위해서였겠지만.

그러나 불행히도 잉카제국과 관련해선 남아있는 문헌이 거의 없다. 이들에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글자가 없다는 것은 남 · 북미 인디언 원주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발굴된 유품가운데는 마치 피카소의 큐비즘을 연상케할 만큼 기하학적으로 정교한 것들도 상당수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페루에 이주한 그룹은 일본인들이다. 200년 전 페루는 일본인들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곳’이

있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대우가 달라 어깨가 으쓱해진다. 삼성과 LG같은 기업들도 진출해 있어 이들 기업이 내게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페루도 경제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달러=3.25을 하던 환율이 지금은 4솔로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어 여행하기는 좋은 시기다.

페루의 한달 평균임금은 300달러밖에 안된다. 그래서 가정부(월 300달러)와 운전기사(월 400달러)를 두고 생활하는 한인 가정들도 적지 않다.

특이한 점은 이상기후 탓인지 비가 거

우선 생체역학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다. 생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역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분야로서 기계공학의 원리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미국에선 메이블 엘스워스 토드(1880~1956)가 선구자로 불린다. 1937년 출간된 ‘생각하는 몸(The Thinking Body)’은 생체역학 분야의 명저로 꼽힌다. 인체를 기계공학적으로 연구해 요가와 필라테스, 골프 등 스포츠에도 널리 인용된다.

페루에 온 것은 지난 2019년 3월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다. 대학교수진은 거의 절반가량이 나와 같은 외국인이다.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스페인 출신 등 다양하다. 나를 교수로 채용한 이도 프랑스계 여성이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이쯤에서 페루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페루는 마추픽추(Machu Picchu)로 대표되는 잉카문화가 찬란히 꽃피운 나라다. 장구한 세월동안 세상과 격리돼 더욱 신비하고 풀리지 않은 영원의 수수께끼 - 바로 남미의 얼굴이다.

잉카의 전설 마추픽추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불과 100년 전의 일이다. 해발 2,400m 바위산 꼭대기에 남아있는 공중도시는 아마 지상에 천당이 있다면 마추픽추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신비함의 극치를 이룬다.

잉카제국은 16세기 중엽 스페인의 정복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카하마르카 전투(the Battle of Cajamarca)에서 잉카의 마지막 황제 아타우알파가 포로로 붙잡혀 처형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당시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자로가 이끌고 온 병사는 소수의 기병대를 포함해 고작 200여 명. 이들이 수천명이나 되는 잉카의 전사들을 제압하고는 단숨에 수도 쿠스코를 점령했다.

잉카제국의 멸망과 함께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의 식민정복활동을 막아낼 수 있는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서울대에 소속감 느낀다’ 학부생 77%, 대학원생 60% 다양성 보고서 발간 ... 동창회 앞날에도 밝은 전망 출신학교 · 성별 등으로 차별 경험도 적지 않아

서울대학교가 지난 2016년에 이어 5년만에 다양성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환경조사는 대학 구성원들의 ‘문화 지형도’를 그리는 작업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학본부는 작년 10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된 제 2차 환경조사를 기반으로 지난 7월 21일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에선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원, 직원 등 4개 집단 6,9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내용은 모두 56개 문항으로 소속감 및 포용성, 다양성

및 소수집단 존중, 공정성, 개방성 및 국제화, 학교생활과 대학운영, 인권헌장 제정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미주 동창회보는 한국의 총동창신문에 게재된 기사 가운데 학부생과 대학원생 및 교원 관련 내용만을 발췌해 싣는다. 특히 ‘나는 서울대에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생이 무려 77%에 달해 이같은 ‘로열티’(loyalty)가 졸업후에도 이어진다면 동창회 앞날에도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편집자.

‘나는 서울대에 소속돼 있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그룹은 학부생이 77.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원 74.4%, 대학원생 59.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집단을 통틀어 여성 대학원생의 소속감이 가장 낮았다.

‘나는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학부생이 74.2%로 가장 높은 긍정 응답을 보였고 이어 교원 70.5%, 대학원생 62.2% 순이었다.

조사는 가장 첨예한 이슈인 차별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서울대에 심각한 차별이 존재한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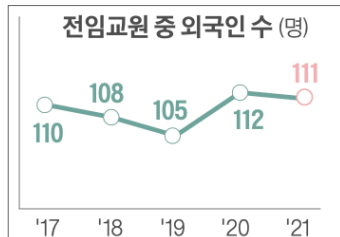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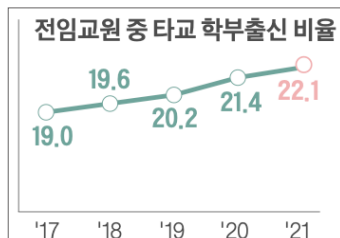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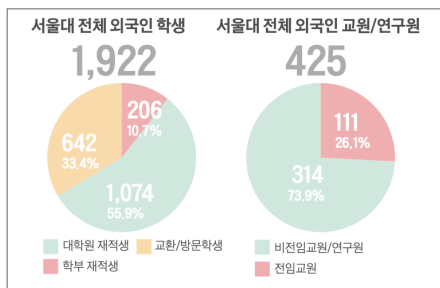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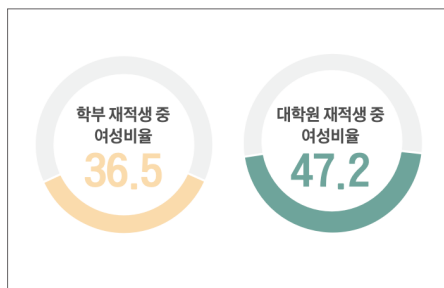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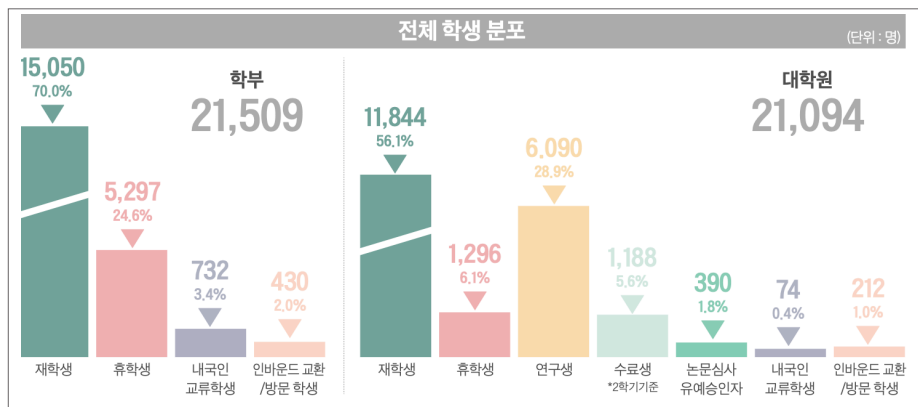
학부생 가운데 여성은 58.5%, 남성은 38.0%가 차별의 존재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원생의 경우 여성이 49.2%, 남성 35.8%로 역시 여성이 차별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교원은 여성이 63.4%, 남성 52.4%로 나타났다.

2016년 같은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 학부생 여성 82.6% 남성 68.4%, 대학원생 여성 78.3% 남성 70.9%, 교원 여성 91.0%, 남성 70.8%가 심각한 차별문제가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해선 크게 개선됐다.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학부생 남성이 19.6%로 가장 낮았고, 학부생 여성의 차별경험 응답은 50대 50으로 나타났다.

5년 전 조사에서 63.3%의 학부생 여성이 차별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차별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부생 남성은

학부생 21,509명, 대학원생 21,094명
전임교원 중 타고 학부 출신 비율 22%
외국인 등록 학생은 1,922명 증가 추세



국제화와 관련된 조사도 흥미를 끌었다. 서울대 등록 외국인 학생은 모두 1,92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학원 재학생이 1,074명(55.9%), 교환/방문학생이 642명(33.4%), 학부 재학생 206명(10.7%) 순이었다.

외국인 교원(연구원 포함)은 모두 425명. 이 중 전임 교원은 111명(26.1%)이었으며 나머지 314명(73.9%)은 비전임이었다.

외국인 학생의 출신국가는 모두 123개국으로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가장 눈길을 끈 조사는 전임 교원 중 타고 학부 출신 비율이다. 지난 2017년 19.0%에서 지난해엔 22.1%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 대학 출신도 이 집계에 포함돼 있어 국내의 비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미주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이 납부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동창회 활성화 및 동창회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보는 이제 월간발행부수 1만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동문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회비 및 후원금 납부양식=27면>

텔로팜 USA는 동창회 포럼의 산물 미세 탐침 센서 부착, 식물 생체 신호 측정 물 절약해 캘리포니아에 최적화된 첨단기술

텔로팜(Telofarm)은 이정훈(공대 85) 기계항공학부 교수가 지난 2017년 서울대 기술벤처기업으로 창업한 회사다.

머리카락 두께의 반도체 센서를 식물에 부착해 수분의 흐름(sap flow)과 속도, 병충해 감염 등을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텔로팜의 미국진출은 지난 2019년 실리콘 밸리에서 재미한인과 학기술자협회(KSEA)가 주관한 Startup Pitch 경연대회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 텔로팜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것.

그러나 팬데믹이라는 암초를 만나 미국 진출의 꿈을 당분간 접어야 했다. 평소 텔로팜을 눈여겨 봤던 한홍택(공대 60·브레인 네트워크 위원장) 박사가 이정훈 교수를 동창회 포럼(쥬 모임)에 초청,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기회를 줬다.

크로프트 팜스

이 포럼에 참석한 최경홍(공대 60) 동문이 이 교수의 스마트팜 기술에 감탄, 북가주에 대형 농장(Croft Farms)을 갖고 있는 지인에게 소개해줬다. 캘리포니아는 수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는데 텔로팜의 혁신적인 기술이 농장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탈바꿈하게 만들었다.

이 교수가 직접 크로프트 팜스를 방문해 텔로팜의 첨단기술을 시연하는 한편 현지법인인 Telofarm USA를 설립했다. 크로프트 팜스 농장주인 마이클 크로프트를 영입해 공동 CEO를, 리사 최가 COO를 맡는 등 체제를 갖췄다.

이처럼 텔로팜의 미주 지사는 동창회와의 인연으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동창회 브레인 네트워크와 기업 라운드테이블(Entrepreneurship Roundtable)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홍택 박사가 큰 역할을 해낸 것은 물론이다. 삼성 호암상을 수상한 바 있는 한 박사는 정부 초청으로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지낸 원로 공학자다.

텔로팜은 창업한지 5년 밖에 안 됐지만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질,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인 UAE는 텔로팜 기술에 관심이 많다. 탐침 기술을 적용하면 토

양없이도 식물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탐침 센서는 아랍권에서 선호하는 대추야자나무(date) 속에 사는 해충

센서를 이용해 식물의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다.

식물상태 모니터링은 물론 비료농도,

체 유지 등에 필요한 식물 생리의 핵심이며 이로 인해 물관으로 흐르는 수분의 속도와 패턴은 인간의 혈압과 맥박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생체정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같은 측정을 위해 기존 연구용 장비들이 사용됐으나 부피가 크고 고가이며 식물이 고사할 정도의 심한 열이 발생하고 전력소모가 심해 단기간 실험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었다. 텔로팜 모델에 적용된 탐침 생체 센서는 이러한 문제를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완전히 극복한 것이다.

방대한 데이터 수집

이에 따라 생체 센서의 IoT 적용이 가능해 졌으며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 저장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데이터를 이용해 생산성, 품질, 자동화 등 미래 신농업의 가치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해 진 것이다.

텔로팜 센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귀한 자원인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한 아몬드 농장은 텔로팜 기술을 적용한 결과 올해 물을 40%까지 절약할 수 있었다. 절약한 물을 되팔아 수익을 챙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라그랑주 포인트’의 꿈

이 교수에 따르면 텔로팜 USA는 현재 20여 농장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올해말까지 50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교수의 꿈은 텔로팜을 나스닥 상장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룬다는 이른바 ‘라그랑주 포인트(Lagrangian Point)’로의 인류 이주 등 우주 탐험도 그의 버킷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한홍택 박사는 “앞으로 동문 소유 골프장도 텔로팜에 소개해 줄 계획”이라며 “동창회에는 다양한 직업군의 동문들이 있어 창업은 물론 비즈니스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농장을 설명하고 있는 이정훈 교수. 텔로팜은 이 교수가 창업한 서울대 기술벤처기업이다.



측백나무에 설치된 텔로팜의 수분 측정기.



텔로팜이 개발한 최첨단 미세 탐침 센서.

올해말까지 최소 50여 고객 확보가 목표 동문이 나파밸리 농장주 소개 꿈 이뤄 “내년 나스닥 상장기업으로 키우겠다”

을 잡는데도 효과적이다. 나무를 갇아 먹는 해충이 생기면 바로 수분의 일정한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해충이 생긴 것을 재빨리 알아낼 수 있다.

탐침 센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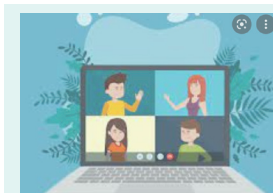
텔로팜은 ICT와 농업의 접목을 통해 혁신적인 미래농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교수는 “텔로팜 기술을 이용하면 식물상태를 파악해서 식물이 원하는 정확한 물의 양을 공급할 수 있어 성공적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식물의 물관 흐름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반도체 기반 미세 탐침

각종 처리 타이밍 결정 등 핵심 농업기술을 생체신호를 이용해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다. 생체센서가 측정하는 대표적인 예가 물관 흐름 속도다.

이 교수는 공학자답게 식물을 태양광의 작용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성, 당분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기계로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수분을 흡수해 증산하는 과정은 체온조절, 양분흡수, 광합성, 물



기업 라운드테이블 Entrepreneurship Roundtable

매달 두번째 수요일 오후 5시(서부시간)

문의: 김량국(사대 92) | rkim@oakbioinformatics.com

벤처 투자자와 벤처 기업인의 만남

김성열(치대 61) 동문 · 박상래(공대 87) 동문

음성압축기술로 위성 통화 ... ‘라이프 캡슐’ 개발도

김성열(치대 61) 동문과 박상래(공대 87) 동문은 줌으로 만난 사이다. 지난 4월 미주 동창회가 마련한 ‘창업 라운드테이블’에서다. 박 동문은 남가주의 손영아(음대 85) 동문의 권유로 ‘흑시나’ 해서 줌모임

을 기웃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동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다. 투자를 받아 미국시장에 진출, 자신의 사업을 크게 키워볼 요량이었다.

김 동문도 그 자신 벤처사업가다. 치과와 관련한 특허도 여러개나 된다. 최근에는 치과 임플란트에 도움이 되는 뼈이식 소재의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모교에도 남달라 서울대에 큰 돈을 기부한 터였다. 후배들이 돈 걱정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고 한다.

박 동문은 서울에 기반을 둔 중견 벤처기업 ‘스타넥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 동문은 줌 모임에서 박 대표의 프레젠테이션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내 집에 한 번 놀러오세요.” 김 동문의 뜬금없는 전화 초청에 박 대표는 깜짝 놀랐다. 아직은 초면인데... 하지만 밝고 온화한 김 동문의 모습에 용기를 내 오래곤주 포틀랜드의 김 동문 집을 찾았다.

김 동문의 집에 머물며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다. 특히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수받았다고 했다.

알고보면 김 동문의 아들 대니얼도 창업해 성공스토리를 썼다. 부전자전이라고 할까.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장점을 결합시켜 만든 전기 오토바이가 그의 작품이다.

리트 모터스(Lit Motors)가 개발한 C-1는 일반 오토바이처럼 2개의 바퀴를 갖고 있지만 자이로스코프라는 첨단 장치가 있어 옆으로 밀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경제주간지 포브스가 전기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혁명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해 화제가 됐다.

박 동문의 스타넥스는 군용사업(전투기 블랙박스)과 보안사업(지문인식 시스템), 무선통신사업(초소형 무전기) 등이 주 종목이다.

현재 한국 공군 전투기의 90% 이상이 박 동문이 개발한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

기존의 블랙박스가 항공기 사고발생 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고작인데 반해 박 동문의 블랙박스는 사고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조종사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어 한국의 공군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 육군과 해군 헬리콥터에도 박



김성열(치대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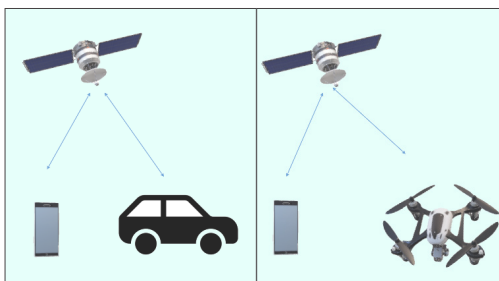


박상래(공대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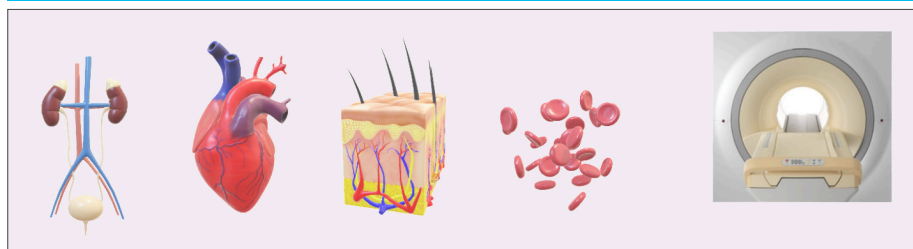
전투기 블랙박스



인공위성 통화



라이프 캡슐



블랙박스 · 초소형 무전기 등 히트작

공군 전투기에 스타넥스 제품 장착

모세혈관막힘제거 기술 ‘의료혁명’

동문의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 동문의 지문 리더기는 획기적인 IT 기술을 접목, 삼성 자회사인 에스원에 독점 납품하고 있다.

박 동문의 또다른 작품은 초소형 무전기. 모토로라의 무전기 보다 크기와 무게가 각각 8분의 1밖에 안 돼 아주 가볍고 사용시간은 최대 60배 오래 간다.

박 동문이 미국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첨단 음성압축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

트폰이다.

일례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통신시설이 파괴돼 인터넷과 통화의 어려움이 발생, 군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위성 수신기 수천대를 보내줘 쓰고는 있지만 위성 수신기 근처에서만 통화를 할 수 있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

위성수신기 없이 스마트폰이 직접 인공위성을 통해 연결하려면 초고효율 음성압축 기술이 필요하다.

박 동문에 따르면 최근 T-모빌과 스페이스-X가 인공위성과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서로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동 착수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년후쯤 깊은 산속이나 바다에서도 문자가 가능한 세상이 올 것 같다.

하지만 음성통화는 현재 음성압축 기술로는 안 되고 수십배 더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얼마 전 구글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 2배 정도 향상된 고효율 음성압축 기술을 개발해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안테나 크기가 작고 무선출력이 약해 이 정도의 압축 기술로는 인공위성까지 음성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현재 압축기술로 인공위성을 통한 음성통화를 하려면 스마트폰의 안테나를 훨씬 크게 만들어야 하고 또 무선출력을 높이려면 큰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의 크기가 커지고 무겁게 돼 휴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우리가 특허 출원한 음성압축기술은 기존보다 최대 100배 까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박 동문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스마트폰으로 음성 데이터를 위성에게까지 전송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 동문은 바라이존과 T-모빌, 스페이스-X 등과 같은 인공위성 및 통신업체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의 또다른 야심작은 ‘라이프 캡슐(Life Capsule)’ 개발이다. IT 기술을 적용해 만병의 근원인 모세혈관 막힘 현상을 제거해 사람이 건강하게 100세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라이프 캡슐은 초음파, 레이저, 고주파, MRI, 로봇틱스, 영상처리,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의 다양한 IT 기술을 사용해야만 완성될 수 있는 최첨단 프로젝트다.

“많은 개발비용이 필요하지요. 김 선배님의 벤처투자가 사실 큰 힘이 돼요. 우리 회사로서는 선배님이 ‘천사’예요. 에인절 투자(angel investment)이지요. 미국시장에서 꼭 성공할 겁니다.”

이범모(치대 71)의 알아두면 좋은 치과이야기 치태는 세균덩어리, 식사후 빨리 칫솔질해야 치석 제거하려면 최소 6개월마다 스케일링



이범모
치대 71

누구나 내 치아로 평생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기를 원한다. 특히 치아를 잃거나 불편한 치아로 인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소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뒤늦게 후회하기도 한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땐 늦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가? 그럼 여기서 자기 치아를 잘 보존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치아관리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식사 후 빨리 칫솔질을 할 것.

음식물과 입안의 세균에 의해 치태(plaque)가 형성되는데 몇 분 안에는 제거가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석회화로 인해 치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칫솔질로는 치석 제거가 힘들어진다.

치태는 거의가 세균 덩어리인데 일단 치석이 생기면 그 위에 치태가 더 잘 붙게되고 치태안의 세균과 우리 몸안의 백혈구가 싸우면서 endotoxin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잇몸 속의 뼈를 서서히 녹이는 잇몸병(풍치)을 만든다.

그 뿐만 아니라 치태 속의 세균이 혈액을 따라 온 몸으로 이동 하면서 심혈관 질환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둘째, 치실(dental floss)의 사용.

아직도 치실을 사용하지 않고 칫솔질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치태를 제거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치실을 꼭 사용해야 한다.

치실과 칫솔질의 순서로 치실 사용을

먼저 할 것을 권유한다. 왜냐하면 치실을 먼저 사용하여 치아 사이와 잇몸을 깨끗히 하면 치약 성분이 그 부위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치실에는 waxed와 nonwaxed가 있는데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치태 제거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non-waxed치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칫솔은 연한(soft or ultrasoft)칫솔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뾰뾰한 치솔모(medium or hard)는 잇몸속에 들어갈 때 아플 수 있어 치태 제거가 잘 안되며 치아 마모도 많이 생길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치간칫솔(interdental brush)

는 것이 좋겠다.

혹자는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닳고 더 시려서 안 하겠다고 한다. 스케일링때문에 치아가 더 닳지는 않고 더 시리다고 느끼는 이유는 치아 사이에 있는 치태와 치석이 제거 되면서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치석이 있으면 잇몸안의 뼈 손실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훨씬 더 해롭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치과에서 정기적인 검사

세번째에서 말했듯이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을 때 구강 검사(엑스레

치실 먼저 사용해야 잇몸 깨끗해져 시니어엔 ‘나이트가드’ 착용 권장 ‘The Sooner The Better’가 미덕



나 water pik 사용도 권장된다.

넷째, 정기적인 스케일링(scaling)

치아도 잇몸도 안 아프니까 치과에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아무리 치실과 칫솔질을 배운대로 잘 해도 치태를 100% 제거할 수 없고 남아 있는 치태가 치석으로 되기 마련이다.

치석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아야만 제거가 가능하다. 치과의사나 스케일링을 전문으로 하는 hygienist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6개월마다 또는 더 자주) 치과에 방문하여 스케일링 및 구강 검사를 받아서 치아 관리를 하

이 등)도 병행하게 된다. 치아도 잇몸처럼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 치아 표면(enamel)에 생긴 충치는 아프지 않다가 더 진행되면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신경치료 등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 통증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면 내 치아도 살리고 돈도 절약하고 일석이조라 할 수 있겠다.

다섯째, “The sooner, The better”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또는 관리 소홀로 부득이 하게 치아를 빼야 한다면

예전에는 양옆의 치아를 갈아서 브리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임플란트 기술이 발달하여 다른 치아를 희생하지 않고 빠진 자리에 심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 자기 치아 보다 좋은 것이 없지만 그 치아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면 되도록 치아를 빨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브리지와 달리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선 치아 아래의 뼈의 양이 중요하다. 발치가 빠를수록 뼈를 이식하지 않거나 이식을 해도 적은 양으로 할 수 있다.

심한 경우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임플란트 기술은 나이와 상관 없으나 잇몸 건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과도 연관이 있으니 “빠를수록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섯째, 나이트 가드(night guard)

노화로 인한 치과 질환은 예방으로 안될 때가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경관은 좁아지고 침 분비도 적어지면서 치아가 건조하여 쉽게 깨지거나 금이 간다. 이런 경우 빨리 치료를 받으면 치아를 살릴 기회가 높는데 오래 방치하면 발치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치아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현상은 노년층 뿐만아니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난다. 특히 나도 모르게 밤에 이를 갈거나 짹 깨무는 습관에서 기인한다.

이럴 경우 밤에 끼고 자는 나이트 가드를 사용 권장한다. 나이트 가드는 치아뿐만아니라 턱 관절을 보호한다.

시중에서 파는 나이트 가드는 교합이 잘 맞지않아 턱 관절에 악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custom-made로 만들 것을 추천한다.

위에서 대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치아 관리법을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치아에 문제가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는다. 만약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조속한 치료를 받는다.

앞에서 열거한 치아 관리법을 잘 실천한다면 평생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서울대 동창회보’ 또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뀌었습니다

snuuaa.org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를 비롯해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매달 열리는 포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뒀습니다. ‘종이’보다는 ‘디지털’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 바뀐 snuuaa.org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접속을 바랍니다.

김병완(공대 58) 남가주 합창단 단장 노래하면 ‘다이돌핀’이 듬뿍 솟아나 ‘행복’ 엔돌핀의 무려 4천배 효과 ... ‘기적의 호르몬’

김병완(공대 58) 동문은 동창회에서 ‘미스터 스마일리(Mr. Smiley)’로 통한다. 아무도 김 동문이 화를 내지는커녕 얼굴 한 번 찡그리는 걸 본 적이 없다. 늘 웃는다. 그것도 미소가 아니라 크게 웃는다. 사진을 보면 윗니와 아랫니가 흰히 보일 정도다.
웃음은 전염성이 강한 탓인지 김 동문의 곁에만 있어도 따라 웃게 된다.

“노래를 부르면 그냥 웃게 되요. 웃다 보면 일상이 행복해 집니다.”
김 동문은 남가주 합창단 단장이다. 이미 팔순이 넘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제 그만 쉬시라’라는 말을 못한다. 김 동문의 곁에 있으면 덩달아 행복해지기 때문일 터다. 노래를 부르면 정말 김 동문처럼 행복해지는 걸까.

10여 년 전 호주의 한 의과대학에서 코럴 싱어, 곧 합창단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모두 1,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의 모두 환자들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행복도가 정상인들보다 훨씬 높게 나왔던 것.

조사를 주도한 그리피스 대학의 단 스튜어트 교수는 합창단원들의 삶에 대한 태도도 매우 긍정적이어서 고무됐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 가량은 만성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98%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련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스튜어트 교수는 노래(합창)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뿐더러 폐기능을 증진시키고 특히 신체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혼자 샤워를 하며 노래를 불러도 효과가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면 유대감이 생겨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노년층, 폐경기인 여성들이 합창단에 가입하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돼 효과가 배가 된

다고 한다.

의학자들은 여럿이 노래를 부를 때 ‘다이돌핀(didorphin)’이 생성되는 것에 주목한다.

다이돌핀은 현대의학이 발견한 호르몬으로 효과가 엔돌핀의 4,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돌핀은 흔히 웃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피로회복은 물론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다이돌핀은 이 보다 수천배나 강력한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해서 일부에선 ‘마법의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이돌핀이 나오는 경우는 다음의 네가지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당해 감동받는 경우, 두 번째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경우, 세 번째는 진



정한 사랑에 빠졌을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 받았을 경우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훌륭한 음악에 감동받는 일은 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과학자들은 다이돌핀이 면역체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 암세포를 공격하는 등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다.

어쩌면 송년 레퍼터리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이 자주 연주되는 것도 사람들에게 연말 선물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합창’은 베토벤이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이다.

4악장에 4명의 독창과 합창이 나오며 독일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환희

의 송가’에서 가사를 따왔다.

“환희여, 신들의 아름다운 광채여, 낙원의 처녀들이여/ 우리 모두 감동에 취하고 빛이 가득한 신전으로 들어가자/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천공의 저 편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찾으라/ 별들이 지는 곳에 주님은 계신다.”

신비로운 분위기로 시작하는 교향곡은 합창단원들이 등장해 웅장한 피날레로 끝난다. 감동을 주고도 넘친다. 다이돌핀이 샘 솟듯 뿜어져 나오지 않을까.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겠다.

남가주 합창단은 오는 11월 19일 음대 정기연주회에 출연, 동문들에게 ‘다이돌핀’을 선사한다. 공연을 앞두고 요즘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나성영락교회에 모여 화음을 맞춘다.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합창단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김병완 동문의 얼굴만 쳐다 봐도 행복해 지는 걸 느낀다.

좋은 노래, 좋은 생각으로 다이돌핀이 일상에서 차고 넘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310) 502-9513

byungw.kim@gmail.com



한영신의 헬스푸드(1)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 풍부 노화방지 · 뇌건강을 위해 ‘권장’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졌다.

수명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신체의 건강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80세 되신 분들을 보면 노인이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젊은 분들이 너무 많다.

이와 같이 오래 살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보다 영양상태이다.

AI자동화 시대에 없어지지 않는 직업 1위가 영양사로 보고된 것을 보면 장수와 젊음을 추구하는 시대에 영양은 점점 중요해질 것 같다.

누군가 나에게 영양전문가로서 간편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식품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견과류’를 추천할 것이다. 견과류는 참으로 기특한 식품이

다. 영양학적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한동안 견과류는 식품군에서 기름과 더불어 지방군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단백질 식품군으로 재편되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 단백질 식품을 식물성 식품으로 섭취 하자는 최근의 영양 트렌드에서 견과류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견과류는 에너지를 주로 지방으로 공급

하고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 에너지와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다.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필수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식품이다. 필수지방산 중 하나인 오메가3는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뇌기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불포화지방산과 관련해 지금 당장 주는 이로움은 피부 젊음 유지다.

인체는 70조 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것

이 대부분 불포화지방산이다.

이들 세포막이 건강하면 겉으로 보이는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은 예측되는 결과이다.

실제로 피부가 좋은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해 본 결과 견과류 섭취가 높았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견과류는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E, 셀레늄 함량이 높아 노화방지와 뇌기능 유지에 훌륭한 식품이고, 이외에도 칼슘,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무기질을 가지고 있어 말 그대로 ‘슈퍼푸드’이다.

그러면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 특정 견과류를 먹기 보다는 여러 가지 견과류를 섞어서 한번에 5알을 하루 3번 정도 먹는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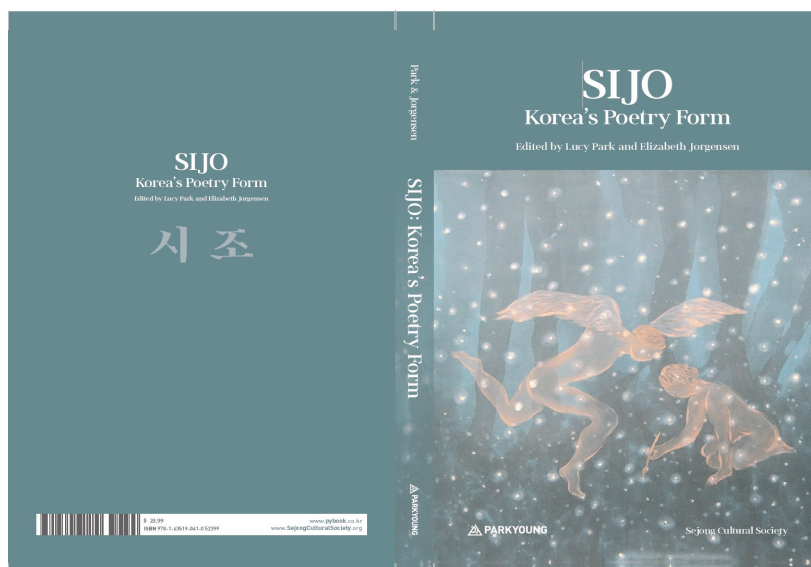
견과류는 지방과 섬유소가 많아 한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안된다 싶으면 먹는 양을 줄여야 한다.

〈생과대 86 · 식품영양학 박사〉

박종희(의대 69) 동문 'SIJO' 공저 “K-팝 못지 않게 시조 대중화에 앞장설 터”



박종희
의대 69



“요즘 K-팝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시조만큼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전통 문화는 없을지 싶어요.”

시카고 세종문화회의 루시 박(박종희·의대 69) 사무총장이 최근 엘리자벳 조겐스와 함께 시조 참고서 'SIJO: Korea's Poetry Form'을 펴냈다. 조겐스는 위스콘신주 애로헤드 고등학교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학생들에게 시조를 가르쳐온 현직 교사다.

“그동안 (주류사회의) 많은 시인들과 교사들이 영어로 된 시조 참고서가 있는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은 교육자료들을 묶어 책으로 만

들어냈지요.”

책은 모두 274쪽. 일선 교사들을 위한 lesson plan과 과거 세종작문대회 수상자들의 작품을 전문가들의 시평과 함께 담았다. 특히 김원숙 화가의 그림도 곁들여 읽기에 부담이 없도록 배려했다.

세종문화회는 지난 2004년 박 동문이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에 제안,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발족했다.

그러나 한인커뮤니티의 참여와 후원을 받기 위해 동창회에서 독립된 비영리단체로 설립할 것을 결정,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동창회 지원금 등 5,000 달러가 종자돈이 됐다.

창립때부터 사무총장을 맡아 봉사해 온 박 동문은 세종문화회를 미국내 한국전통문화의 요람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호범(상대 69) 동문이 세종문화회 이사를 맡아 박 동문을 돕고 있다.

세종문화회는 세종작문경연대회(시조/수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률이나 장단이 들어간 현대곡을 연주해 시상하는 세종음악경연대회, 한국적인 주제가 포함된 세종국제작곡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세종문화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교사들을 상대로 한 시조교육 세

미나와 워크숍 개최. 일선 교사들이 학교 정규수업에 시조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다.

시조교육세미나는 하버드대학의 데이비드 맥켄 교수와 브리검영 대학의 마크 피터슨 박사 등이 초빙돼 가르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조 낭송회를 열고 있다.

박 동문에 따르면 세종작문경연대회(시조부문) 참가자는 미국과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뉘어 대회를 치르는데 거의 90%가 비한인들이다. 매년 평균 전국에서 1,000~1,500명이 참가한다. 출품작은 모두 영어로 작성되지만 시조는 전통 운율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

시조를 주류사회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때로는 이색적인 행사도 연다. '시조·와인·예술의 밤'이 바로 그것. 와인을 마시며 한글과 영어로 시조를 읊조리고 합창을 듣는 이채로운 이벤트를 기획해 화제를 불러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세종국제시조 경연대회'에는 전세계 19개국에서 모두 204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장원은 코아 닌 빈 안(베트남) 교사. 차석은 메들린 에서(위스콘신주 애로헤드고 12학년)가 차지했다.

박 동문은 “이번 SIJO 발간을 계기로 시조가 미국에서도 K-팝처럼 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Still American

By Roberto Santos,
first place 2013

*They say go, return to land that
I don't know. It makes no sense.
Born and raised American, so
Mexico is still foreign.
Culture kept, but this is my
home.
Immigrant, no: Hispanic.*

I had first heard of this competition as a class assignment for my English Four(John B. Alexander High School) class and winning first place came as a great surprise!

Without my teacher pushing the class to join, I probably would've never done it out of fear of failure.



The fact that I won something for just writing thoughts I've always had with a creative twist still blows my mind!

I live in a border town(Laredo, Texas) made up of a Hispanic/Mexican majority, where Spanish is spoken just as much as English; although I'm proud of my heritage,

English is still my primary language. In my spare time I make music with my friends and spend time with my family. I plan on majoring in musical engineering to help expose some of my talented friends' music.

Thanks to this competition I have more confidence in my academic capabilities and feel inspired to participate in more writing competitions.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차차기회장 후보추천 공고

제18대(2025.7.1. ~ 2027.6.30) 회장 후보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 중 미주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제18대 미주 동창회장 · 2025.7.1. ~ 2027.6.30)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훌륭한 후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 회장, 차기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인선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646-523-9606

노명호 회장
626-991-4457

이상강 차기회장
918-616-3386

정정욱
뉴잉글랜드
401-556-5501

최경선
북가주
408-621-8080

박상근
D.C.
703-447-8175

황치용
시카고
224-334-1224

제 18대 회장
(2025.7.1 ~ 2027.6.30)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선거일정

근거규정

- 2022년 12월 31일 차차기 회장 추천서 접수마감
-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회보 등을 통해 출마 공약을 발표.
- 2023년 6월 제 32차 전국 평의원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선출.

- 근거규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위원회 규정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남가주 55학번의 정기모임

매달 마지막 화요일 이야기 꽃 피워

공대출신이 문리대 회장에 추대 ... 폭소터져

남가주에는 '55+UCLA'라는 모임이 있다. UCLA에서 수학한 55학번 동문들을 일컫는다. 1960년대 중반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일본 도쿄에 들러 미국 땅을 밟은 학번들이다. 매달 마지막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모여 화제의 꽃을 피운다.

지난 8월 30일 주재현·이향기·박인석·김덕만·이채진 동문 등이 부부동반해 모였다. 정치학을 전공한 문리대의 이채진(클레어몬트 매키나대 석좌교수) 동문만 빼고는 모두 공대 출신이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주재현 동문의 '입담'. 트로피까지 들고와 '무용담'을 들려줬다. 1995년 문리대동창회골프토너먼트 메달리스트. 그런데 공대출신이 어떻게 문리대 동문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에서 메달리스트가 됐을까.

이 교수가 곁에서 궁금증을 풀어줬다. 문리대 모임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다 보니 누구나 주 동문이 문리대 출신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문리대 회장 추대까지 받았으며 비화를 공개, 모임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주 동문은 문리대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어 결국 이실직고하고 말았으며 멋진 표정을 지었다.

왜 공대 동창회에 나가지 않고 문리대에 나갔느냐는 질문엔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길래...

이날 공통된 관심사는 운전면허증 갱신. 필기시험에 두 번이나 떨어져 혼쭐이 났다는 얘기에 저마다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올해부터 문제가 거의 모두 바뀌어 '열공'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

"금년말 즈음 나도 갱신해야 하는데..." 이 교수가 끝탕을 하자 누군가가 즉석에서 처방을 내놨다. 1주일에 두 세번 장어를 먹으면 정상 시력을 되찾게 된다는 것.

이 교수의 아내 강미자 여사가 반색을 했다. "맞아요. 오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양반은 워낙 고집이 세서 내 말을 안 들어요.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이 교수를 쳐다보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향기 주재현 강미자 김덕만 이채진 박인석

며 눈을 흘겼다.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이 교수 부부는 동문이다. 음대 62학번인 강 여사는 미국에 유학, 줄리아드에서 수학한 소프라노다.

실제로 LA 한인타운의 올드타이머 한 분은 UCLA 박사과정 공부를 하던 중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장어를 거의 매일 3개월 가량 먹고 나서 신문의 작은 글씨까지 읽게 됐다는 얘기에 이 교수는 한껏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오늘 저녁부터 장어구이 먹는 거예요."

강 여사의 채근에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동문의 집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강 여사의 '피난열차'도 이날 화제가 됐다. 평양이 고향인 그는 1·4 후퇴 때 부모를 따라 피난열차 지붕 위에 올라

탄 채 남쪽으로 왔다. 잠시 머무르다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휴전이 되는 바람에 강원도 영월의 탄광촌에 정착하게 됐다. 가난이 그를 짓눌렀으나 오직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부모의 재정적 지원없이 강원도 산골을 벗어났다.

이화여중, 서울예고를 거쳐 서울대 음대까지 거침없이 혼자 힘으로 내달렸다. "언어와 음악으로 감정의 깊이를 표현해 낼 수 있는 성악가는 아주 드물다. 강미자는 재능과 지혜를 겸비한 흔치 않은 소프라노다." 줄리아드 음대시절 사사한 오렌 브라운 교수의 평이다.

모임에선 사공일(전 재무장관) 동문 등 함께 수학했던 동문들의 추억담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국립외교원에서 강의 일정이 잡혀있어 9월말쯤 출국할 예정이다. "그럼 오늘이 자네 환송식이네." 이향기 동문이 짐짓 섭섭한 표정을 짓자 이 교수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9월 27일 모임을 갖고 비행기 타겠네. 모임에 빠질 수야 없지. 걱정 마시게." 이 교수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브라보!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박인석 동문이 몸을 일으켰다. "오늘 점심은 내가 쏘겠네. ㅎㅎㅎ."

정용운(농생대 81) 동문 추석 대국 '우승'

지난 9월 10일 북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소재한 한인기원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추석을 맞아 바둑대회가 열린 것. 매년 설과 추석에는 대회가 열렸는데 코로나-19 탓에 2년만에 처음 대면 행사로 치러졌다.

이 대회에서 정용운(농생대 81) 동문이 B조에서 우승, 상금 300달러를 받았다.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수학박사학위를 받은 정 동문은 아마 1단의 고수. 주변에선 수학박사답게 몇 수 앞을 보는 거

같다며 정 동문의 기량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 동문이 대회에 참가한 건 내년 6월 열릴 제1회 미주 동창회장배 바둑대회 총무를 맡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우선 자신의 기량부터 점검하고 또 대회 진행과정을 눈여겨 봤다가 내년 서울



제임스 박 전 워싱턴 바둑회장장과 대국을 하고 있는 정용운 동문(왼쪽).

대 대회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동창회장배 바둑대회는 내년 6월 제 32차 평의원 회의(장소는 미정) 일정에 맞춰 열린다. 대회는 워싱턴 D.C. 동창회 주관으로 치러지는데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열린다. 주최 측은 개인전은 갑조

와 을조로 하되 갑조는 아마 1단 이상, 을조는 1단 이하의 기급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허세를 부리면 집이 적어지고, 실리를 탐하면 세력이 떨어집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수를 두고, 음흉한 사람은 썸수를 두지요. 내년 대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가해 바둑을 통해 친교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한정희<미대 81>

Janice Rha, MD

Radiation Oncology

방사선 암전문치료과

나정자(간호대 70) janicerhamd@gmail.com

ALHAMBRA
626-227-2777
707 S. Garfield Ave., Suite B002, Alhambra, CA 91801

DOWNEY
562-291-6580
10226 Lakewood Blvd Suite B, Downey, CA 90241

김해령(경영 04) · 김진우(수학 05) 동문 부부 ‘밋상’ 후배가 내 최고의 남편이 된 사연은 ...

안녕하세요!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는 김진우(수학 05) & 김해령(경영 04) 부부의 김해령입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양재고) 동문이기도 해요.

아쉽게도 저는 문과, 남편은 이과였고 학년도 제가 한 학년 위라 서로 고등학생 때의 풋풋한 모습은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 인연의 시작은 2004년 여름 제가 그 해에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들과 함께 모교에 초대되어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진학 팀(?)을 발표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발표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기억이 안 나지만 남편은 제가 기억이 난다고 해요. (저는 이때부터 저에게 반한 거라고 놀립니다 ^^).

그러나 이날의 이벤트는 후배들과 어울리는 시간 없이 발표만 하고 끝나서 큰 이변(?)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다시 만난 건 (그리고 제가 처음 제대로 남편을 본건) 2005년 3월 양재고-서울대 동문회의 개강 파티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첫인상은 ‘키가 크다’와 ‘수학 잘해서 좋겠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시 동문회가 제법 큰 편이어서 학기 동안 1대1 교류는 거의 없었다가 학기 막판에 둘이 밥을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동문 회장이었고 동문회 전통에 따라 신입생 전원에게 따로 점심을 사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신입생들은 4월 초 전에 점심 약속을 다 잡은 반면 남편은 바쁘다며 계속 시간을 안 내줘서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학식이나 학교 주변에서 중식을 사달라고 했던 다른 신입생들과는 달리 무려 스파게티를 사달라고 해서 강남의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머, 첫 데이트?” 하실 분들을 위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주문 직후 양해를 구한 뒤 식사 내내 아무 말없이 수학 과제만 풀고 있었거든요. 스마트폰도 없던 시

절의 저는 주문한 봉골레 속의 조개 수만 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 이렇게 바쁘는데 내가 괜히 밥을 사주겠다고 했구나” 라는 제 말에 “아닙니다, 선배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죠” 라고 말하며 웃

던 모습이 그렇게 밋상일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기는 한 것 같아요.

이듬해 제가 3학년이 되면서 동문회 활동에 거의 참여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도 남편의 군복무 그리고 제 석사 유학 기간



1년 후배인 남편과는 거의 7년만에 재회, 평생의 반려자가 됐다. 아래는 우리 부부의 웨딩 촬영날 사진.

첫 식사때 수학과제만 풀고 있어 ‘실망’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우연히 재회
지금은 사회성 완전 탑재된 가족 버팀목

등의 이유로 한동안 거의 얼굴도 못 보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서로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2011년 늦가을, 저희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 다 근처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더라고요. 비록 학교를 다닐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니 역시 동문은 반가웠고 그 다음 주에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식사에 나가기 전 까지만 해도 오래간만에 만난 후배와의 캐치업 모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둘만의 식사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보려고 나름 읽을거리도 챙겨 갔어요.

그런데 다시 만난 남편은 사회성 완전 탑재된 대한민국의 파워 직장인이었고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즐겁고 편안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어서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무척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남편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저희는 재회한지 얼마 안 돼서 곧 교제를 시작했고 그 이듬해 11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결혼 10주년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네요. 돌이켜보면 남편은 재회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 든든한 버팀목이자 파트너로, 그리고 2018년에 태어난 저희 딸에게 정말 최고의 아빠로 거듭나며 항상 제 옆을 지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이 좋게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면서 같이 늙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글을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기고하기에 앞서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덕분에 오래간만에 추억여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소 어색한 구절이 있어도 예쁘게 봐 주시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이 없으면 섭섭할 것 같아서 풋풋했던 10년 전 웨딩 촬영 날의 저희 부부 모습 공유합니다. ^^

동창회보 광고협찬 후원금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미주 각 지역에 살고 계신 동문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인쇄매체입니다. 매달 거의 1만부를 인쇄 배포하고 있어 동창회의 재정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갖고 계신 동문들이 광고로 협찬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후원금과 함께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시는 종신이사 회비도 동창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내=27면 참조〉

황보엽(음대 65) 동문 보스턴 심포니 은퇴
유화 · 도자기에 정진 ... 또다른 장르에 도전



보스턴 심포니에서 오랫동안 제1 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하던 황보엽(음대 65) 동문이 8월 은퇴했다.

1973년에 입단하였으니 49년만이다. 그가 입단할 때만 해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에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계 단원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시절이다.

황 동문은 보스턴 심포니에서 Mary B. Saltonstall chair, endowed in perpetuity, 보스턴 팜스에서 Eunice and Julian Cohen chair, endowed in perpetuity로 겸임 재직했다.

재직하는 동안 오케스트라 외에도 동료들과 함께 Francesco String Quartet를 구성하여 제1 바이올린 주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보스톤 팜스의 솔로이스트로 존 윌리엄스의 지휘아래 여러차례 공연하기도 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연주로 Vieuxtemps Violin Concerto No.5, Mozart Concerto No. 4와 'Fiddler on the Roof' arranged by Jerry Rosen을 꼽았다.

다. 이외에도 그는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와 탕글우드 뮤직센터(Boston University Tanglewood Institute)에서 바이올린과 실내악 교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써왔다.

황 동문은 6·25 전쟁 피난시절 부산 어린이 합창단에 조인하면서 음악에 눈을 떴다고 한다. 수복후 어렵게 구한 바이올린으로 7세때 레슨을 시작하였고 후에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부 안용구 선생을 사사했다.

1965년 음대에 입학한 후 청룡음악상을 수상하면서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

위스컨신대의 Abraham Loft 교수를 사하며 Fine Art String Quartet 멤버로 활동하던 중 Young Competition에서 1위 입상을 계기로 밀워키 심포니에 발탁



정물화



도자기

된 심포니임을 알고난 후부터 그는 언젠가 꼭 보스턴 심포니의 연주가가 되겠다

청룡음악상 수상 ... 미국 유학
프란시스코 현악 사중주 창단

되었고 밀워키 심포니 부악장을 거쳐 보스턴 심포니에 입단하였다.

그가 반세기를 보스턴 심포니에서 보내게 된 계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학창시절 클래식 다방을 즐겨 다니던 그는 어느날 놀랄만큼 섬세하고도 절제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 음악을 연주한 오케스트라가 보스

고 다짐하고 그 목표를 위해 매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낚시와 가드닝이 취미라는 황 동문은 바이올린 이외에도 유화, 도자기에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는 뛰어난 솜씨를 자랑한다.

다재다능한 그가 은퇴후 또다른 예술 장르에서 펼칠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취재=이경애<인문대 73>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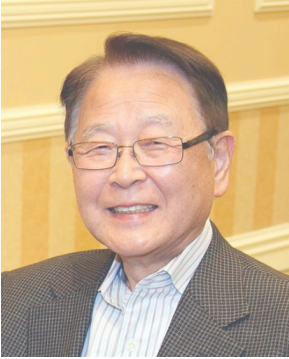
‘종신이사’ 노재성(법대 58) 동문 타계
“르네상스 맨으로 다방면에서 뛰어나”

노재성(법대 58) 동문이 지난 8월 29일 타계했다. 유족은 고인이 남가주 뉴포트비치 자택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스럽게 임종했다고 알려졌다.

미주 동창회 종신이사이기도 한 노 동문은 동창회의 ‘올드타이머’로 존경받아왔다. 주변에선 노 동문이 동창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며 그의 타계를 애석해했다.

노 동문과 고교(경기고) 및 대학 동기생인 박찬호(공대 58) 동문은 “체이스(재성)는 이른바 ‘르네상스 맨(renaissance man)’으로 삶의 모든 부문에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보여준 친구”라고 추모했다.

지난 9월 4일 코로나 델마의 퍼시픽뷰 메모리얼 파크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강경수(법대 58), 방효준(의대 58), 한효동(공대 58), 최진석(법



대 64) 동문 등 고교 대학 친구들은 물론 과거 고인이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들도 다수 참석해 노 동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특히 이날 테너 오위영 동문이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 중 제 5번 ‘보리수’(Der Lindenbaum)를 불러 장내를 숙연케했다.

대학 졸업 후 일리노이 주립대(어바

나 샴페인)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고인은 모교에서 조교수로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나 1977년 벤처기업(CR Technology)을 세워 경영자의 길로 나섰다. 이어 ANAgraph(캐논에 매각), AnaJet(리치에 합병) 등을 창업해 부를 일궜다.

고인은 기업 경영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는 등 미술품 수집에도 전문가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다.

이외에도 비에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오렌지카운티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의 후원자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2년 전에는 자택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등 서울대 동문 음악인들을 초청, 하우스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디 여사와 2남이 있다.

김호웅(법대65)
동문 별세

뉴잉글랜드 동창회에서 이사로 수고하시던 김호웅(법대 65) 동문이 지난 8월 28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동문은 일리노이주 Midwes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에서 한의학

과 침술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일리노이와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지난 20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왔다. 장례미사는 9월 1일 그가 성심껏 섬기던 성 앙투안 다블뤼(St. Antoine Daveluy Parish at Corpus Christi) 보스턴 한인 성당에서 있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김은숙씨와 두딸, 유나(Yoona)와 안젤리나(Angelina)의 가족이 있다.

관악캠퍼스 세대가 동창회 주역돼야 ‘마로니에’ 대체 차세대 지도자 육성 시급

동창회 구성원들의 고령화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지난 6월 평의원 회의에서 세대교체론이 불거져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주 동창회 심재호 IT 국장의 동창회보 구독자 분석이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59~62학번대가 가장 많아 전형적인 ‘인구 마름모꼴’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2014~2018 학번대 독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다.

평의원 회의에서의 토론도 이른바 ‘관악연대’의 참여에 방점이 찍혔다. 90년대 학번 이후 세대를 참여시켜 ‘보다 젊은, 보다 활기찬’ 동창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주 동창회는 관악연대 활동 지원금으로 2만달러를 책정, 곧 각 지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각 지부가 제출한 관악 세대 활성화 방안과 기금 용처 등을 소개한다.
- 편집자.

필라델피아

관악회가 주관·출연한 ‘가을 음악회’ 골프와 피크닉 등 행사 예정돼 있어

필라 지부의 회원은 약 150명. 이 중 관악 캠퍼스에서 수학한 동문은 40여 명이나 된다. 지난 8월에는 관악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한 바 있다.

‘가을 음악회’(9월 17일)가 필라 동창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열린다.

음악회는 소프라노 심회진, 김성희, 정경희, 테너 김기웅, 바리톤 채희승 등 동문 성악가들이 출연한다. 행사 주관도



필라 지부 창립 45주년 기념음악회. 관악회 회원들이 주관하고 출연한 행사다.

관악회 동문들이 맡고 있다.

이어 10월에는 골프와 피크닉, 12월에는 연말 파티와 세미나, 소음악회가 예정돼 있다. 모두 관악회 회원들간의 친교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이종태(사대 71) 회장은 “오래 전 이곳에 정착한 선배들과 관악연대 동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동창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남가주



지난해 11월 열린 원로초청 오찬 모임. 관악연대 출신 임원들이 주관한 행사다.

80년대 학번 동문들이 주도, 역사 길어 관악 골프대회, 관악 해끝잔치 등 예정

남가주 관악연대는 미주에서는 가장 역사가 길다. 초창기에는 70년대 후반~80년대초 학번들이 주축이 돼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연극공연, 세미나, 소음악회, 캠핑 등을 자주 갖는 등 관악 캠퍼스 출신이라는 연대의식이 매우 강했다.

박제환(문리대 75) 동문이 회장으로 선출되자 관악연대 활성화안이 수면 위로 떠올라 오는 9월 24일 처음으로 관

악 골프대회가 열린다. 예상 참가 인원은 30~40명.

이어 12월 초에는 관악 해끝잔치 겸 바베큐 파티를 열어 젊은 동문들을 대거 동창회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박제환 회장은 “나도 관악연대 출신이어서 내 임기내에 관악연대를 꼭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며 “남가주 관악연대가 전국의 표준으로 거듭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잉글랜드



지난 4월 열린 바베큐 피크닉. 100여 명의 관악 동문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90년대 이후 학번 위주로 구성돼 연 2회 바베큐 모임, 단톡방도 개설

관악회는 대부분 보스턴 일원에 거주하는 90년대 학번 이후의 동문들로 구성돼 있다. 4월과 9월 연중 두 차례 야외 바베큐 모임을 정례화하는 한편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동문들의 소식(입학, 졸업, 취업, 공연, 수상, 결혼, 출산, 부고)을 전하며 자발적인 소그룹 네트워킹을 유도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유학생, 사회 초년생들이 많은 관악회의 특성을 고려, 야유회 등 행사는 회비없이 전액 자발적 후원금 및 동창회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첫 바베큐 파티에는 78명이 참

가했으나 올해는 100명이 넘는 회원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초대 회장은 신진우(농생대 04) 동문, 차기 회장은 정해원(자연대 02) 동문이 선출됐다.

관악회 회원들 중 상당수가 자동차가 없어 우버 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피크닉 장소도 도심에서 우버 기준 20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주 동창회가 1,000달러의 지원금을 보내줘 처음으로 바베큐 파티를 열 수 있었다.

미시건

임원진이 전원 ‘관악’ 출신, 가장 젊어 K-Culture 시리즈, 10개월간 40회 행사

지난 7월 처음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한 미시건 동창회는 임원진이 모두 80년대 이후 학번의 ‘관악’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미주 27개 지부 가운데 가장 젊다.

미시건 지부는 ‘K-Culture Club’ 계획을 입안, 내년 7월까지 10개월간 총 40회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클럽 ‘우리들의 노래’는 이도훈(경제 06) 동문이 클럽장을 맡고 있다. 기타와 피아노 반주에 맞춰 추억의 노래들을 따라 부르며 그 시절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년 7월 예정된 K-Culture Festival의 포스터.

심민정(음대 96) 동문이 진행하는 ‘청아한 대바람 소리’는 월 3회, 전통음악을 선보인다.

동문자녀인 임지원씨의 ‘익어가는 시간’을 발효음식을 직접 만들고 시음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온일미반’은 한국인의 정서인 따뜻한 음식 나누기다.

한영신(생과대 86) 동문이 진행한다.

심미나(사대 91) 동문의 ‘오늘은 뭘 볼까’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선정, 온라인 모임에서 토론을 벌인다.

〈17면으로 계속〉

하이라이트는 내년 6~7월 예정된 K-Culture Festival. '어서와 우리랑 여름은 처음이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미시

건 한인 문화회관에서 열린다. K-Culture 시리즈는 약 9,500 달러의 경비가 소요되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다.

시애틀 워싱턴 지부

빅테크 기업 밀집 ... 젊은 동문 유입 크게 늘어 '나서자' 모임 재 론칭, 내년 자녀교육 세미나도

시애틀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이 급 성장을 하고 있어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를 전공한 젊은 동문들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들 동문들간의 유대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문회에 나오거나 회비를 납부하는 90~00년대 학번의 동문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창회는 대부분 은퇴한 선배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세대간 갭을 느끼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시애틀 지부는 '나서자' 모임을 다시 론칭할 계획이다. '나서자'는 '나는 서울대 동문의 자녀다'의 첫 글자를 따 만든 것이다. 모임은 동문들의 자녀들과 가족을 소개하는 개념으로 출발했다.



80~90년대 학번 자녀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이미 졸업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자녀들간의 유대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것이 모임의 발족 취지다. 4~5년간 지속되면서 동문자녀들간에 친구가 만들어지고, 동문 가족간에도 친구가 되는 등 좋은 이벤트가 됐다.

오는 12월 연말행사로 '나서자'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녀 교육관련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90~00학번 동문들의 자녀들은 초중고 대학생

이 대부분이다.

이들 동문들의 주된 관심사인 자녀교육 세미나를 열어 정보 교환은 물론 친교의 장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내년 4월 봄방학 시즌 행사로 기획돼 있다.

이 거주하고 있다.

학번대 별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4학번 이전의 동문들은 '마로니에', 75~95학번은 '아크로폴리스', 2000년대 학번은 '샤로수'로 명명해 임원진과 자주 소통하고 있다.

각 동아리 별로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어 세대별 동문들간의 대화를 장려하고 동창회 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마로니에 단톡방에는 92명, 아크로폴리스에는 136명, 샤로수에는 110명의 동문들이 등록돼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톨 및 소셜미디어(Linkedin, Facebook, Youtube)를 통해 지역 동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동문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있다.

특히 3개월에 한 번씩 Linkedin의 유료 톨(Sales Navigator)을 이용해 이 지

역으로 이주해 오거나 전에 알지 못했던 동문들을 찾아 동아리 단톡방에 초대하고 있다.

북클럽, 테니스, 바둑, 탕고, 하이킹, 골프, 사진 등 10개 정도의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가장 젊은 동문들의 동아리인 '샤로수'에는 20대~40대 동문들이 중심이다.

따라서 관심분야가 비슷할 수 있는 기혼동문들(샤로 '매')과 미혼동문들(샤로 '싱')으로 나누어 해피아워, 번개 등의 모임을 갖고 있다.

박상근(법대 75) 회장은 "동창회는 '고령의 선배들만 계시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선후배들간의 친목 및 동문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재밌고 유익한 모임이 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네소타



지난 5월 열린 동문 피크닉. 10월에는 세미나도 열린다.

10월 중 오찬 점한 학생 동문 세미나 개최 선후배 소그룹 결성, 정기적인 만남 지원

지역 특성 상 동문 유학생들이 많은 곳이다.

오는 10월 중 점심식사 겸 학생 동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동문들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를 선호하는지 단톡방을 통해 알아 본 결과 가장 관심있는 주제는 학계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미국경험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 그리고 잡마켓 인터뷰 요령 등 세가지를 꼽았다.

동문 세미나는 송창원(화학과 53) 동문과 김권식(공대 61) 동문, 남세현(응용화학 67), 차재호(농공 84), 용정식(농화학 86) 동문 등이 참여해 후배들과 질

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선후배 동문간의 소그룹 결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권식 동문은 후배 10명을 식사에 초대,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

앞으로 소그룹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 선후배간의 친목 다짐은 물론 경험을 나누는 등 동문들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네소타를 상징하는 티셔츠 등을 제작해 모든 동문들이 일체감을 갖도록 힘을 받침이다.

<18면으로 계속>

워싱턴 D.C

'아크로폴리스' '샤로수' 등 학번대별 단톡방 북클럽, 탕고, 사진, 테니스 등 10여개 동아리



이주희 동문 자택에서 열린 '샤로수' 회원들의 친목 모임. 단톡방도 운영, 소통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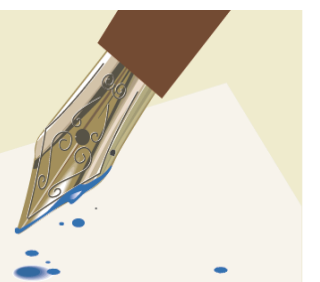
워싱턴 D.C. 지부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를 아우르고 있어 젊은 동문들의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

는 곳이다.

대부분 50대 미만으로 자녀교육, 커리어, 이민 등 도움이 필요한 동문들이 많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북가주

80년대 학번부터 4개 소그룹으로 나눠 모임
최승희(경제 81), 신지은(약대 91) 동문 간사

동문들을 80학번대와 90학번대, 00학번대, 10학번대 등으로 나눠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80학번대는 최승희(경제 81) 동문이, 90학번대는 신지은(약대 91) 동문이 각각 간사를 맡아 모임을 이끈다.

00학번대와 10학번대도 곧 간사를 지명할 계획이다. 학번대 별 모임이 결성되면 그룹 피크닉 등을 통해 단합을 다진다.



북가주 동창회는 하이킹 등 산행으로 뭉어져 있어 가족같이 짝한 사랑을 보여준다. 80년대 학번은 최승희 동문, 90년대는 신지은 동문이 주축이 돼 이끌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코로나 사태 이후 관악세대 참여 저조
80년대 이후 학번 별도 모임 적극 지원

밴쿠버의 80년대 학번 동문은 모두 46명, 90년대는 9명, 중간에 끼인 70년대 학번은 55명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관악세대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다.

이에 따라 밴쿠버 지부는 80년대와 90년대 이후 학번 동문들이 별도로 모임을 갖도록 적극 지원할 계



획이다. 곧 '대학 동문회가 80, 90, 00학번대의 동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도 갖는다.

필요 경비는 지난해 동문회 진흥기금을 쾌척한 김병준 동문의 기부금에서 우선 지출해 사용할 계획이다.

시카고



시카고 동창회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를 연 4회 개최, '관악'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실생활 도움되는 컨퍼런스 연 4회
소모임 적극 지원 ... 실내활동 재개

팬데믹 이전만 해도 관악클럽은 회원수가 70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비드 사태 이후 참여 동문숫자가 25명 정도로 줄었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20~30대는 학업과 직장, 30~40대는 육아와 자녀 교육으로 인해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룹에도 오프라인을 대신해 매주 1회 열리는 온라인 '스와재(스패니시와 재정 공부) 모임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성으로 관악클럽의 핵심 활동이 되어 왔다.

앞으로 관악클럽은 커리어 또는 생업에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와 함께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참여를 북돋을 플랫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 연 4회 개최 ▲온가족 참여 야외 행사 연 2회(봄 가을) ▲페이스북에 관악클럽 커뮤니티 개설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실행방안으로서 동문들의 소모임을 적

극 장려하고 실용적인 사진 서비스 제공(정기모임 및 컨퍼런스 참가자들에 개인 프로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연 4회 개최가 하이라이트다.

▲컨퍼런스 1(네트워킹): 회원들의 직장(학교, 비즈니스, 단체 등) 소개 및 네트워킹.

▲컨퍼런스 2(커리어 및 멘터링): 회원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연관 업종 동문들을 소개하고 경험과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컨퍼런스 3(자녀 양육): 육아 및 교육에 관심있는 동문들을 위한 모임(선배들의 양육경험 공유).

▲컨퍼런스 4(자녀 교육):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는 동문들을 위해 세미나 형식으로 정보제공.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 하는 자연체험, 하이킹, 과일 피킹 등 계절에 적합한 야외활동을 지원하고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댄스 클럽 등의 실내활동도 재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종섭 총동창회장 후원
나눔/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11월 15일(화) ·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 · 공대 61)는 오는 11월 15일(화) 라스베가스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장학기금 등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 4월 제 1회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선발대회를 통해 모두 10명의 대학생들을 선정, 1인당 1만 달러의 스타쉽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대회는 동문 또는 동문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주 전체 한인 커뮤니티에 오픈, 잠재력이 많은 인재들을 발굴해 이들의 학업 및 연구 성취도를 높이고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미주 동창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서 앞으로 동

창회의 외연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학기금 프로젝트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동문들의 참여와 기부 없이는 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본국의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도 동참의사를 밝히



며 특별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 인접해 있어 유명인사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지난 1967년 오픈한 골프장은 PGA와 LPGA 등 프로대회도 유치한 바 있어 라스베가스 최고 명소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인근에 그랜드 캐년 등 관광자원도 풍부해 패키지 여행도 가능합니다.

동문들의 친교도 겸해 열리는 이 대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일정

-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 ▲신청마감: 2022년 11월 1일
- ▲참가비: \$500 (그린피, 디너 등 포함)
- ▲숙박 및 관광일정: 추후 공지
- ▲장소: The Las Vegas Country Club
www.lasvegasc.com
3000 Joe W Brown Dr., Las Vegas, NV
- ▲문의: 310-719-5422
서치원(대회 조직위원장 · 공대 69)

북가주

새 회장에 최경선(농생대 65) 동문
차기회장 김범섭 · 총무 정국휘 선출



지난 8월 27일 열린 북가주 총동창회의 야유회 겸 총회. 모두 65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북가주 총동창회 신입회장에 최경선(농생대 65 **사진**) 동문이 선출됐다. 동창회는 지난 8월 27일 쿠파티노 시카모어 그룹 피크닉 사이트에서 야유회 겸 총회를 개최했다. 거의 2년만에 대면으로 모임을 가진 이날 행사에는 모두 65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임준원(공대 77) 전 회장과 김철규(공대 60) 이사장의 환영인사와 함께 진행된 총회에서는 최경선 동문을 회장으로,

김범섭(공대 79) 동문을 차기 회장으로, 정국휘(미대 88) 동문을 총무로 각각 선임했다. 이로써 북가주 총동창회는 지난 2년여의 회장 공석을 메꾸었다. 최 신입회장은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창회는 9월 24일 이사회를 갖고 이사 및 집행부 임원들을 선임한다. 한편 야유회는 임승패 동문의 재치 있는 사회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Zinfandel 산행클럽 회원들과 최승희(경제학 81), 신지은(약대 91)총무 등이 앞장서 모든 준비를 완료해 회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문의: (408) 621-8080(최경선 회장) 취재=임승패(문리대 66)**

뉴욕



지난 8월 20일 이사회를 겸한 야유회에 10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사회 겸한 야유회 100여 명 참석
에드워드 강 동문에 총장패 전달도



뉴욕 동창회(회장 금영천 · 약대 72) 야유회가 지난 8월 20일 락클랜드레이크 주립공원에서 열렸다. 야유회를 겸한 이날 피크닉에는 동문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사회는 회장 인사말에 이어 장학기금 현황과 결산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동문들은 게임과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

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날 에드워드 강(사대 60 · **사진**) 동문에게 오세정 서울대 총장패가 수여됐다. 총장패는 지난 6월 LA에서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오 총장이 직접 수여할 예정이었으나 강 동문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 뒤늦게 전달된 것이다. 강 동문 부부가 지난 2017년 설립한 ‘에드워드 & 인애 강 자선재단’은 매년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5,000 달러씩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올해(5월)는 매튜 정(워싱턴대), 캐서린 김(브라운대) 등 10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취재=허유선(생과대 83)**

시카고



공연에 앞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시카고 동문들. 모처럼의 대면 모임이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양인모 바이올린 협연에 ‘극찬’
‘라비니아’ 축제 동문들 대거 참석

지난 8월 21일(일) 초가을의 오후. 100여 동문들이 하일랜드 파크에 모였다. 라비니아 페스티벌(Ravinia Festival)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에밀 드 쿠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차이콥스키 스펙타클러’. 특히 한국이 낯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파가니니 콩쿨 우승)씨가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갖는다는 소식에 많은 동문들이 축제를 찾았다. 티켓은 이영우(문리대 66) 동문이 일찌감치 예매해 표 구입에 어려움은 없었다. 공연에 앞서 동문들은 미리 준비한 저

녁과 과일, 치즈와 와인 등을 피크닉 테이블에 펼쳐놓고 서로 안부를 물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단절을 경험한 동문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자주 모이지 못했음을 아쉬워 하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공연이 열린 퍼빌리온은 수용인원이 3,300명. 표가 매진돼 빈자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양인모의 바이올린 선율이 밤하늘에 곱게 퍼지자 관중들은 어느새 고요함 속으로 깊게 빠져 들었다. 같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진하게 가슴 한 켠에 녹아들며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한 하루였다. **취재=이준수(공대 76)**



골프 토너먼트 참가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싱글 골퍼인 오병진(의대 63) 동문이 그로스 챔피언에 올랐다.

오병진(남) · 전두증(여) 그로스 챔피언
추계 골프 토너먼트 25명 참가 ‘성황’

지난 9월 10일 호프만 에스테이츠의 힐데일 골프클럽에서 열린 추계 골프 토너먼트에 모두 25명의 동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대회 후 참가자들은 전자생활용품 등 푸짐한 경품추첨 이벤트를 갖고 추석맞이 송편과 영양떡 등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다.

이날 입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남자 부문** 그로스 챔피언(오병진), 네트 챔피언(노재원 · 김훈테), 장타상(이준수), 근접상(정성일). **▲여자 부문** 그로스 챔피언(전두증), 네트 챔피언(김승주), 장타상(황정수), 근접상(김승주).

워싱턴 D.C



지난 8월 19일 열린 오세정(앞줄 가운데) 총장 환영 오찬 모임. 오 총장은 재미과기협 학술대회 참가차 방문했다.

오세정 총장 환영 오찬 모임
재미과기협 행사 참석차 방문

오세정 서울대 총장 환영 오찬 모임이 지난 8월 19일 열렸다. 이날 페어옥스에 소재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오찬에는 박상근 워싱턴 D.C. 회장 등 모두 21명의 임원 및 동문들이

참석해 오 총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오 총장은 지난 8월 17~21일 열린 재미과학기술자협회(재미과기협 · K-SEA) 본부에서 열린 학술대회(UKC 2022) 참석차 DC를 찾았다.



박상근
법대 75

지난 8월 26일(금) 오후 북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소재한 'Dolce Vita' Italian Kitchen & Wine Bar에는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그룹의 해피 아워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른바 DMV(디씨,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지성을 대표하는 중년 그룹이 한 자리에 모여, 마치 죽마고우를 해후한 듯 말 그대로의 '해피 아워'의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그룹 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알려진 워싱턴 디씨 지부는, 학년 그룹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모임과, 취미와 관심 분야에 따라 조직된 동호회 모임들이 있어 동문들간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어울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중 '아크로폴리스' 동아리는 모교가 관악산으로 캠퍼스를 옮긴 첫 해인 1975년 입학한 75학번부터 99학번까지의 동문들이 속해있다.

이 날의 모임은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아크로) 동문들의 해피아워였던 것.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소그룹의 번개 모임들이 자주 있어왔지만, 법 아크로 레벨의 공식적인 해피아워를 열게 된 것은 정확하게 1년만이었는지라 금요일 오후의 교통 체증도 가볍게 뚫고 온 느낌들이었다.

총 29명이 참석했는데 함께 온 배우자들과 새로운 동문들도 소개하고 마침 생일을 맞은 동문에 대해 모두 축하하며 너무도 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아크로의 최고 고참인 75학번 동문들이 네 사람이나 참석해 후배들과 인사를 나누며 과거 학창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모두 웃고 즐긴 것이다.

그간 동문회 명부에는 있었지만 나오지 않던 동문들도 다수 참석했고 이 지역으로 새로 이사해 조인한 동문들도

있었다.

또한 아크로는 아니지만 그 밑의 (젊은) 동아리 모임인 '샤로수' 회원이자 37대 동창회 부총무를 맡고 있는 박은경(불어교육 03) 동문이 깍두기로 참석해 선배들과 교제하며 샤로수에 대한 소개도 곁들였다.

워싱턴 디씨 지부는 37대 임기를 2020년 7월에 시작하며 코비드로 인해 동문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을 고려, 그간 소그룹모임을 장려해왔다.

그 일환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해피 아워 모임으로 처음에는 줌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소그룹 대면 해피 아워로 발전하면서 동문 중 고국으로 귀국하거나, 생일 혹은 경사가 있을 때 기념하여 모이곤 했다.

이번 모임에는 새로 이곳 지부에 조인하며 생일을 맞이한 이준(조경 94) 동문의 생일파티와 박상근 워싱턴 디씨 지부 동창회장(법학 75)의 손녀딸 탄생을 기념하여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주희 총무(음대 89)는 앞으로 있을 지부의 여러가지 행사(9월 19일 저자와 함께 하는 북클럽 모임,

9월 24일 가을 테니스 대회, 10월1일 동문가족 피크닉, 10월4일 현대음악속한국문화 세미나, 11월19일 북클럽 대면 모임, 12월17일 연말파티 등)를 동문들에게 알렸고, 특히 정용운 (농대 81) 바둑 동호회 간사는 내년 6월에 개최 예정인 미주 동창회배 제 1회 바둑대회를 소개했다.

해피 아워모임이 끝난 후에는 임원단에서 준비한 재치있는 퀴즈를 참석한 동문들과 아크로 전체 동문들에게 아크로 단톡방을 통해 전해주고 가장 많은 답을 맞춘 동문 4명에게 부상으로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주며 행사를 맺었다.

동문과의 만남은 비록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여타 사회적 모임과 다르다.

앞으로도 이런 동문회의 소그룹행사들을 통해 워싱턴 디씨 지부의 동문회가 더욱 활성화되며 동문간의 우의가 깊게 쌓여 이곳 지역사회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

〈워싱턴 DC 동창회장〉



이대영
문리대 6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3년을 기다리다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의 방역격리가 해제되자마자 고국을 방문했다. 서울에서 문리대 동기생들이 환영해 주는 모임에 갔다가 한 절친 동기생으로부터 막 출판한 책을 선물 받았는데, 제목이 '천년의 소리'였다. 범상치 않은 제목에 호기심이 당겨졌다.

저자인 신현웅 동문은 행정고시에 합격, 관계에 진출한 이후 평생 문화행정가로 살아왔다.

문화체육부 차관과 새천년준비위 상임위원장으로 공직을 마친 후에는 웅진재단 이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다문화가족과 '그림자 아이들'(미등록 이주 아동)의 삶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복지

를 위해 힘쓰고 있다.

다문화음악 방송을 개설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등을 통해서 220만명에 이르는 국내 이입노동자들에게 음악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몇년째 세계최저 출산율로 쪼그리고 있는 한국에서 이처럼 다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해외이민자들은 고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융성해질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소위 '한류'가 세계 곳곳에서 히트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도깨비 방망이일까? 그런 궁금증을 이 책이 답할 것이라고 호기심반 기대반으로 나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읽기 시작하였는데 손에서 책

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 책 안에서 펼쳐지는 문화의 뿌리, 역사, 유산, 배경, 계기, 발전이 오늘의 세계를 주도하는 한류로 이어지기까지 흥미진진하기 때문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책에는 서울 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평창 동계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 박람회와 영화제들이 여러 중요기록과 함께 비화들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너무 재미있고 유익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흐뭇하고 큰 감동으로 남는다.

저자는 '천년의 소리'에서 문화란 천년을 두고 울리는 소리라고 말한다.

오늘의 K-팝, 시네마, 드라마, 웹툰 등 한류의 물결이 오대양 육대주에 파도처럼 넘실대는 K-Culture의 힘의 원천은 가무를 즐겨온 한민족의 문화유전자, '정'과 '신바람'의 '한국심' 그리고 과학적인 한글의 힘이라고 했다.

신 동문은 한국의 출산율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대로 지속되어 간다면 21세

기 말에 존망의 위기를 맞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며 외국인이 와서 살기 좋은 열린 사회,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해법의 하나가 된다고 내다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보태자면, 저자는 최근에 타계한 이여령 초대 문화부 장관과 맺은 인연이 각별하였다. 이 전 장관은 타계하기 불과 며칠 전에 책의 '추천의 말'을 손수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글로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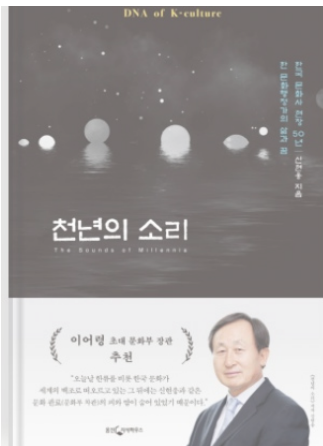
"오늘날 한류를 비롯해 한국 문화가 세계의 백조로 떠오르고 있는 그 뒤에는 30년 동안 줄곧 나와 함께 일해 온 신현웅과 같은 문화관료의 피와 땀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책 '천년의 소리'를 통해서 비로서 K-컬처 DNA 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책은 Aladin US에 들어 가서 ebook 검색창에서 '천년의 소리 신현웅'을 치면 바로 ebook(\$12.99)으로 연결된다. 종이 책은 \$24.24에 구입할 수 있다.

〈전 뉴욕 동창회장〉

‘천년의 소리’ 일독을 권하며





유자효
사대 불어교육 68

누구나 자기 생애의 황금시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유년기에, 또는 청년기에 황금기를 맞기도 한다. 운동선수들이나 뛰어난 연주자들이 그 경우에 속할 것이다. 또는 부모를 잘 만나 부족함이 없는 어린시절을 보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

때로는 장년기에, 때로는 노년기에 황금시대를 맞기도 한다. 인생이 무르익어가면서 맞이하는 황금기는 한 사람의 생애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처럼, 성숙한 인생이 발하는 광휘는 그 사람의 생애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나이 70대중반, 한번쯤 이런

학생증 맡아주던 통술집 추억

생각을 해도 용서받을 나이는 되지 않을까? 내 생애의 황금기는 과연 언제였는가?

되돌아본 내 생애의 황금기는 단연 대학시절이었다. 우선 그때는 양친이 모두 계실 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것은 나의 최대의 행운이었다.

동기들보다 2년 늦게 대학에 진학하니 당시 사범대학에는 이른바 문예부흥(Renaissance) 운동이 팽배했었다. 우리보다 10년 가까운 선배들이 문리대에서 벌였던 '산문시대'를 사범대학에서 부흥시켜보자는 야심찬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대문학회에서 일했던 그 운동의 중심에는 국어과의 김재홍, 신상철, 윤상운이 있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김태일과 장영간이 정신적 형이었고, 이문열, 김한영, 우한용 등이 자주 뭉쳤다.

우리들은 매주 작품 합평회를 했었는데 분위기가 치열했다. 지금 돌아보면 실력보다는 의욕이 앞서가던 젊은 혈기의 경연장이었다. 합평회가 끝나면 학교 근처의 통술집에서 2차 모임이 열렸으니 콘사이스나 학생증까지 맡아주던 술집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태일

은 아침에 충혈된 눈으로 나타나서는 밤새 소설 한편을 썼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불태워버렸다는 말을 예사로 했다.

우리는 선농단 터인 청량대에서 시화전도 하고, 문학의 밤도 열어 나름 문학적 분위기에 빠져 지냈다. 그리고 당시 문단에 진출한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기부금을 받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착취 결사대'라고 명명했는데, 김광협, 김원호, 유성규 시인, 박해준, 김국태 소설가 등이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그 기금으로 '창작시대'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패기와 치기가 어우러진 산물이라고 하겠다.

습작과 합평에는 거칠 것이 없었으나 연애에는 서툰 소년들이었다. 잘 안되는, 때로는 실패한 연애담이 우리들을 울리곤 했다.

1년 반 동안의 대학시절을 질풍노도 속에 보낸 나를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접고 창원 훈련소에 입소하였다. 6주 신병훈련후 육군 병기학교에 배속된 나를 김한영이 찾아 왔다. 그가 전한 소식은 '김태일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선배 문인의 출판기념회에 갔다가 지하도에서 실족 추락사했다는 비보였다. 나는 군 면회소인 것도 잊고 영

영 울었다.

나의 사대문학회 시절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대학에서는 후배들이 우리의 뒤를 잇고 있었다. 나는 취직을 걱정해야 하는 복학생으로 변신하였다. 대부분 신춘문에 등으로 등단하고 유명 문인들이 되었다.

복학생 시절 나는 대학 후배와 만나 뒷날 결혼에 이르러 이제 손자까지 두게 됐으니 모교는 내게 긴 생명을 선사했다. 우리들의 가슴 설렌 '기쁜 우리 젊은 날'의 결실이었던 셈이다.

*유 동문은 모교졸업후 KBS 유럽총국장, SBS 이사,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을 지냈다. 1972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해 시집으로 '성자가 된 개', '신라행', 시선집 '성스러운 뻘' '세한도', 시집 해설서 '잠들지 못한 밤에 시를 읽었습니다' 등을 냈다. 정지용 문학상과 김삿갓 문학상, 만해문예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아주 오래전 군 복무시절 얘기다. 첫 휴가를 나와 버스를 타고는 요금을 냈다.

하지만 여차장이 한사코 안 받겠다며 손사래를 쳐 본의 아니게 무임승차를 할 수밖에.

툑툑거리는 버스에서 얼마쯤 졸다 깨다를 반복한 끝에 드디어 집 앞 정거장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자 여차장은 내 군복 바지 주머니에 얼른 돈을 찔러줬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고는 맑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승객들 돈을 받아 내게 주었으니 따지고 보면 공금횡령이나 다름없었겠다.

그때 버스 차장 월급이라고 해봤자 최저임금은커녕 생존임금에도 못미쳤을 터. '뺑뺑은 죄가 아니다'는 인식이 널

리 퍼져 있을 때여서 시시비비를 가릴 계제가 아니었다.

뺑뺑을 쳐서 내게 주었지만 그 차장의 마음 씩씩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하기가 나라 지키느라 고생했는데 돈 몇 푼 훔쳐 준 것이 뭐 그리 대수일까마는.

문득 그 차장이 생각난 건 얼마 전 어느 미군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읽고 나서다. 이름과 계급, 소속은 밝히지 않았다. 두 아이의 아빠인 그는 민간인 복장을 하면 여느 40대 가장이나 다름없는 평범한 소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런데 군복을 입은 채 부대를 나서면 그 순간 '영웅'으로 신분이 바뀐다고 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 참 민망하다는 것.

심지어 "이 분때문에 우리가 편히 지낼 수 있다"며 "땡큐하라"고 아이들을 다그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줌마들은 또 어쩔고. 아내가 보고 있는데도 갑자기 허그를 하겠다고 뒤에서

껴안아 곤혹스럽기조차 했다. 할리우드 스타도 아닌데.

그가 경험한 '최악의 사례'는 그로서리 마켓에서다. 크레딧 카드를 긁으려 하자 캐시어가 "어느 손님이 먼저 계산을 했다"며 웃음을 내비쳤다.

그 뿐인가. 어느날은 웬 생면부지의 남성이 100 달러 짜리 기프트 카드를 건넸다. 그로서리 보는데 보태 쓰라며. 창피스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붉어졌다. 흠리스도 아닌데.

처음엔 시민들의 군 제복에 대한 존경심으로 여겨 고마웠는데 그것도 한두번이지 이젠 '싫증나고 지친다'고 썼다.

그 군인은 이들을 일컬어 '크레이지 언클(crazy uncle)'이라고 불렀다. 직역하면 '미친 아저씨'가 되겠으나 요즘 우리말로로는 '꼴통 아재'가 가깝겠다.

미국서는 진보 보수의 이념이나 당적에 관계없이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는 이렇게 글을 맺었다. "내게 너무 고마워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런데 '크레이지 언클'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이 나라엔 '똥끼'있는 아재들이 수도 없이 많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들의 '미친 존재감'이 미국 아니 미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다.

지난 8월호에 소개된 김한나(인문대 03) 동문은 '크레이지 레이디'라 불릴 만하다. 김 동문은 한국전에 참전한 바 있는 찰스 랭글 전 연방하원의원의 수석 보좌관 출신이다.

자기 돈을 들여 6.25 참전국을 모두 방문, 참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병들을 찾아 고마움을 전했다. 김 동문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것 뿐.

김 동문은 연방의회가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이름 모를 미군과 김 동문의 감동 스토리를 읽고 느낀 게 하나 있다. 미치지 않고서는 나라를 건사할 수 없다는 그런 소회다.

〈편집고문〉

꼴통아재와 '크레이지 언클'

‘미라보 다리’의 회상

60년대 동숭동 시절의 ‘세느강’은 온데간데 없고 “아, 세월은 잘 간다 … 우리의 사랑도 흘러내리네”



조중형
의대 63

The Past is never dead. It's not even past. - William Faulkner

50여년의 의사 생활 중 마지막 6년을 모교의 분당병원에서 보내다 퇴직-은 퇴하고 시카고 집으로 돌아온지도 어언 1년이 넘었다. 일생을 새벽부터 수술장,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70줄을 넘긴 후 최근 몇년은 직접 수술을 하지 않았기에 좀 편안했을까?

돌이켜 보면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고려말 야은 길재 선생의 시조처럼 꿈같은 세월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음을 요즘 절실하게 느낀다.

은퇴는 했지만 지난 2년 그놈의 코로나 사태로 여행도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주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낮에는 내방에서 나의 잡일을 혼자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는 집사람과 같이 영화나 한국 비디오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얼마전 우연히 TV에서 우디 앨런의 ‘빠리의 자정(Midnight in Paris)’이란 영화를 보게 되었다. 앨런 특유의 재치, 유머와 야유(sarcasm)가 섞여있고, 옛날 빠리 여행중 비싼 커피 호강을 한번 했던 전통의 카페 레 뒤마고(Le Deux Magot)의 모습도 잠깐 나오고, 음악도 우리 귀에 익숙한 옛 노래 ‘Parlez-moi d’amour(사랑한다고 말해주오 - Lucienne Boyer)’의 달콤한 멜로디가 잔잔히 깔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 영화는 내 젊은 시절, 프랑스 노래에 빠져 있었던 의예과 시절의 향수를 저리게 불러오고 있었다.

1963년 의예과에 입학하고 보니, 교과 과정은 고교시절과 별 다른없이 짝짜여 있었지만 수업은 자주 빼먹는 풍조가 만연했고 교수들도 의예과 학생들을 문리대의 ‘의붓 자식’처럼 생각하는 듯 했다.

의과대학 건너편 대학로 문리대 쪽으로는 성북동-해동에서 이화동을 거쳐 청계천쪽으로 탁류가 흘러가는 한 3-4미터 폭의 개천이 있었는데 누군가 ‘세느강’이라 이름을 부쳤고, 개천위로 의과대학 정문을 마주 보며 문리대 교문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미라보 다리(Pont Mirabeau)’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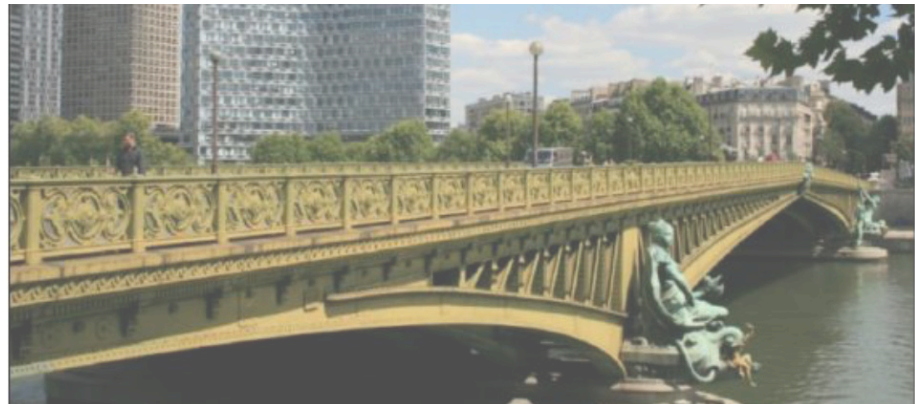
누가 이런 이름을 부쳤을까? 문헌

을 좀 찾아보아도 누구 한 사람을 지적할 자료는 없는듯 하고, 전후 세계를 강타한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 영화의 영향, 상송, 여기에 매료된 당시 문리대의 문학청년들(당시 사상계나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 낙양의 지가

그리고 70년대 나의 도미 후, 관악 캠퍼스 이전을 전후하여 우리의 세느강도, 청계천도 복개되어, 60년대에 동숭동 캠퍼스에서 청춘을 보낸 문리대, 법대, 의대, 미술대 등 우리 세대의 추억 세느강과 미라보 다리는 영원히 사



1960년대 문리대 전경. 누군가가 동숭동 개천을 세느강, 다리를 미라보라 불렀다. 아래는 프랑스 파리의 미라보 다리. 30여개의 세느강 다리 중 하나다.



를 올리고 있던 김승옥, 이청준, 김현 등--의 영향, 또 아폴리네르의 연애시 ‘미라보 다리(Le Pont Mirabeau)’를 낭만적 노래로 불러 유행시킨 상송가수 이베트 지로나 줄리에트 그레코의 60년대 성공적 방한 공연 등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측해볼 뿐이다.

경성제국대학시절 모 일본 교수가 심었다는 마로니에 나무 두 세 그루 있던 문리대 교정에서 데모도 없고 좀 조용한 날에는 가끔 책이나 신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작은 키의 ‘딸깍발이’ 일석 이희승 교수나 농구 선수 출신 사회학과 이상백 교수, 국사학과 이병도 교수 같은 원로 교수들의 얼굴을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수학과나 화학과 동물학, 식물학과 등의 교수님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경외감, 성스러움(?)같은 것을 이 분들의 용자(容姿)에서 느낄 수 있었다.

1965년 봄 길 건너 의과대학에서 본과 생활을 시작- 졸업후 연건동 병원에서의 레지던트 생활 등 그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후에는 미라보 다리로 세느강을 건너갈 일이 거의 없었다.

라졌다.

요즈음 동숭동 옛날 문리대 근처를 가보면 가히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수 있다.

낙산 중턱까지 식당, 카페, 맥주홀, 크고 작은 극장(1,000여 군데 이상)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옛날 그 교정에는 마로니에 두그루 쯤 남아 있지만, 산천(山川)도 의구(依舊)하지 않고 인결(人傑)도 간데 없다.

잡상인들이며 데이트하는 젊은 아이들 떠드는 소리로 늘 시끄러운 우리의 고향에는 “낯선 건물들이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한다”- 김광규(독문과)의 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서.

아! 세월은 잘 간다!

20세기가 끝나가는 1999년, 나는 가까이 지내던 친구 Y군이 공직으로 빠리 근무를 하고 있는 기회에, 당시 제네바 WHO 본부에 근무중인 S군 포함 친구 두명을 더 유혹하여, 그해 7월 가까이 지내던 옛 친구 네 부부 여덟명이 조우(遭遇), 빠리 바깥의 프랑스 전국을 도는 우리 끼리의 ‘세기의 여행’을 기획했다.

여행이 끝나고 나는 아내와 Y군의 관저에 며칠 더 머무르며(염치없이) 지하철을 이용, 이전의 파리 여행에서 가보지 못했던 구석 구석들을 찾아가 볼 수 있었다.

빠리에 처음 올라온 삼총사의 촌뜨기 탈타냥이 결투할 장소로 골랐던 뤽상부르그 공원도 걸어보고, 연인 이었던 화가 마리 로랑상과의 이별의 슬픔을 노래했던 시인 기욤 아뮐리네르의 ‘미라보 다리’도, 그의 무덤이 있는 뻘레 라셰스 공원묘지도 아내와 찾아가 보기도 하였다.

우리가 머물던 빠리의 서쪽 16구(區) Y군의 관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미라보 다리는 조금 실망이었다.

주위의 경관도 다리의 구조도 평범한 동네의 다리였을 뿐. 단지 그의 시 ‘미라보 다리’의 한구절이 새겨진 동판이 붙어 있어서 요절한 시인 아폴리네르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나같은 이방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물론 우리 젊었던 시절 구정물 흐르던 개천 ‘세느강’, 또 문리대 교문 앞의 동숭동 그 미라보 다리보다는 잘 만들어져 있었지만, 30여개의 세느강 다리 중 영화나 소설, 여행기 등으로 자주 소개되는 빠리의 동쪽 변화가에 있고 구조도 더 정교한 조각으로 꾸며진 세느강의 다른 다리들 - 야경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3세 다리(Pont Alexandre III), 풍네프 다리(Pont Neuf)나 젊은 연인들의 다리 폰테자르 다리(Pont des Arts)보다는 실망스러웠다.

이제 아내나 나의 나이도 70대 후반, 코비드 사태까지 생각해 보니 빠리에 다시 가 볼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그럴 기회가 온다면 오늘밤 본 영화에서 처럼, 자정을 알리는 시계탑의 종소리가 울릴 때 낡은 푸조 자동차를 타고 우리의 좋은 시절(The Belle Epoque)로 돌아가 상 제르맹(St. Germain des prés)에 있는 카페 레 뒤마고(Le Deux Magots)에 들려, 자주 출몰하던 기욤 아폴리네르나 의사 시인 앙드레 브레통 혹은 작년에 90여세의 나이로 돌아간 줄리에트 그레코라도 만나 커피라도 한잔하며 나의 ‘동숭동 미라보 다리 시절’ 이야기를 하다 돌아오는 고노(古老)의 겨울 꿈을 꾸어 본다.

빠리 바게트에서 만들어 역 수출된, 내 손녀가 좋아하는 한국식 마카롱과 자를 이들에게 대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 강은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흘러내린다. 내 마음 깊이 아로새기리. 기쁨은 늘 고통 뒤에 온다는 것을. 밤이며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남는다~.”

아이슬란드 4박5일 백패킹 도전기

시뻘건 용암이 살아 꿈틀대고 산 정상엔 만년설 시리고 시린 청정수는 계곡을 지나 북해로 흘러



이우진
농생대 86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진행하고 있던 모든 프로젝트가 갑자기 멈추고 세상도 멈춰버렸다. 그렇게 어느 지인의 제안으로 시작한 하이킹이 이제는 내 삶의 없어서는 안되는 일부분이 되어 버렸다.

지난해 그랜드캐년 종주를 하고 올해는 세계 10대 하이킹 코스중 하나인 아이슬란드 라우가베구르 코스와 팜피르 두할스 코스를 4박 5일 일정으로 잡았다. 텐트, 침낭 그리고 행동식(휴대식량) 등 약 35파운드 배낭을 매고 85km를 걸어야 한다.

아이슬란드는 화산과 용암, 그리고 빙하와 폭포의 나라이다. 아직도 지하 단층에서는 시뻘건 용암이 살아 꿈틀거리고, 산위에는 수만년의 빙하가 구름 위로 펼쳐져 무엇이 만년설인지 구름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 북해의 거친 바람이 산위의 빙하를 눈보라로 길게 풀어서 구름에 이어지고 있다.

용암의 분출로 주변은 검붉은 산이 되었고 언저리 빙하는 얼음산으로 계곡을 덮고있다. 빙하 아래로 녹아내리는 청정수는 녹색의 깊은 계곡을 지나 장엄한 폭포로 북해의 차가운 바다 속으로 사라진다.

물과 불이 공존하며 장엄하고 경외로운 경관을 이루고 넓게 펼쳐진 초원에는 양들과 조랑말이 자유롭게 노니는 평화로운 그곳이 아이슬란드다. 내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에서는 5시간 50분,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는 거리다.

7월 23일 아침 6시 30분 케플라비크 국제공항 도착, 렌트카로 수도 레이카비크를 거쳐 헤라로 이동해 거기서 하이커 셔틀버스로 갈아탔다. 랜드마 나라우가르까지는 2시간 이상 비포장 길을 달려야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만년의 설산에 눈이 부시다. 덜컹거리며 강과 언덕을 넘어 캠핑장에 도착하니 벌써 오후 4시, 이미 하이커들의 텐트가 빼곡하다. 텐트를 치고 라면에 건조비빔밥이 저녁이다.

가까이 있는 노천 온천으로 직행한다. 뜨거운 용암 속에서 솟아 나온 온천물과 빙하의 개울물이 합쳐져 적당한 온도의 개울형 노천 온천이 생겼다. 공짜다! 온천물에 와인 한잔이 그저 흐릿하다. 밤 10시가 지나도 북극 백야현상으로 텐트 밖이 대낮이다. 눈가리개와 귀마개는 필수. 7월 말인데 생각보

다 춥고 바람도 거세다.

7월 24일 새벽 4시. 밖이 흰하다. 오늘의 목적지 Alftavatan 산장까지는 24km, 초반의 10km은 오르막이다. 검은색 용암바위와 그 사이 녹색 평지에서 한가롭게 풀 뜯는 양떼들이 평화롭다. 저만치 하얗게 솟아오르는 크고 작은 간헐천 수증기와 유황 냄새가 지구 초창기를 연상케한다. 10km 이상 오르니 빙하의 언덕이 나오고 갑자기 찬바람에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정말 변화무쌍한 날씨다!

오늘은 15km. Alftavatan호수에서



만년의 빙하... 역겹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물이 땅 속으로 녹아내려 북해의 깊은 바다로 돌아간다. 가운데가 필자(오렌지 상의).



계곡마다 폭포가 쏟아내는 하얀 포말들이 정겹게 느껴진다.

Emstrur 산장까지다. 날씨는 흐리지만 온화하고 바람도 잠잠하다. 화산과 용암이 흘러내려 사방이 돌과 화산재 사막이다. 멀리서 금세 공룡이 튀어나올 듯한 착각도 든다. 2개의 개울을 건너는데 발을 물에 들여놓는 순간 머리까지 쭈뼛해지며 시리다 못해 발목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검은 사막지대를 한가히 걷다보면 멀리 하얀구름 위로 Eyjafjallajokull과 Myrdalsjokul 빙하 지대가 보인다. 산장은 검은 모래 사막 산 아래있다. 검은 언덕 위의 흰 눈이 여름에 녹아내려 계곡을 이루고, 그 주변에서 나무가 자란다. 풀과 꽃이 화려하게 만개했다.

시냇가 옆에 텐트를 치고 보니 알록달록 텐트가 화산사막에서는 꽃이 된다. 건조 비빔밥에 북어국이 저녁이지만 그저 꿀같이 달콤하다. 밤늦게 텐트안으로 찾아드는 바람소리는 사막의 흥얼거림이고, 나는 사막의 어

린 왕자가 되어 밤새 소행성으로 날아다녔다.

7월 25일 Emstrur 15 km. 오토밀로 아침을 때우고 길을 나선다. 구름위로 빙하가 눈부시도록 시원하다. 점차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이동하면서 몇개의 빙하언덕과 계곡, 그리고 아프도록 시린 빙하 강물을 건넜다. 한때 에너지를 뿜어냈던 화산은 이제 검붉은 용암능선과 백색의 빙하지대가 되었다. 수십 만년의 빙하의 이동으로 골이 깊게 파여진 지형은 녹색 이끼의 계곡으로 옷을 갈아 입었다.



검은 언덕 위의 흰 눈이 녹아내려 주변에선 풀과 나무가 자란다.



검은 언덕 위의 흰 눈이 녹아내려 주변에선 풀과 나무가 자란다.

산장에 가까워지니 나즈막한 자작나무 숲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위로 두 Eyjafjallajokull과 Myrdalsjokul의 빙하산이 구름 위로 솟아올라 시선을 막는다. 다행히 이곳 산장에 자리가 있어 전원이 안에서 기거할 수 있었다.

자리라해야 그냥 매트리스 한장의 병크베드, 남녀혼숙이다. 일인당 75달러! 더운물로 샤워를 하고 매점에서 사온 10달러 짜리 맥주가 다리 근육을 녹작지근하게 풀어준다. 밖은 추적 추적 비가 계속 내리는 저녁이었다.

7월 26일. 매우 흐리다. 여기 포스목(Po'rsmo"rk) 산장에서 스코가 폭포까지는 큰 산과 빙하지대를 넘어가는 30km 11시간 코스다. 무리하기엔 다들 지쳐있다. 산장 담당자에게 날씨를 물어보니 폭우에 강한 바람이라 매우 위험하다고 하여 날씨를 보고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시내 숙소로 돌아왔다.

제대로 된 숙소에서 문명의 혜택을

즐기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

7월 28일. 아침 날씨도 좋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온다지만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30km를 하루에 끝내기 위해 짐을 최소로 하고 간식과 비옷만 챙겨서 출발. 버스 도착이 11시 30분이어서 갈길이 바쁘다.

Basar 산장을 지나서 오르기 시작하니 멀리 Eyjafjallajokull과 Myrdalsjokul 빙하 지대가 거대하게 가로막고 있다. 오르다 보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다시 한 고개를 넘으면 영화 '에텔바이스'의 스위스 초원이 평평하게 펼쳐진다.

빙하지대를 통과해 거의 정상에 오르니 황량한 용암지대와 분화구가 나타난다. 2010년 3월20일 아이슬란드의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유럽의 하늘을 덮어 공항들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화산분출로 인해서 주변에 엄청난 라바가 쏟아졌고 이제는 식어 검고 붉은 용암바위산과 검은 화산재가 되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전쟁터 같다. 검은 화산재를 뒤집어 쓴 빙하지대가 계속된다.

빙하 사이로 흐르는 물로 목을 적신 후, 마지막 정상을 향해 발길을 재촉한다. Fimmvörðuháls pass를 코앞에 두고 짙은 안개가 길을 막는다. 뒤에 오는 일행이 보이지 않아 한참을 기다렸다. 50m 간격으로 5m 높이의 노란 막대를 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정상에는 바람도 안개도 심했다. 산장에서 'Viking Beer'를 구매 마시며 북해의 바이킹에게 나도 한가닥 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완만한 내리막에, 계곡마다 폭포다. 만년의 빙하, 검붉은 능선, 녹색의 이끼 평원, 그리고 크고 작은 폭포들이 쏟아내는 하얀 포말들은 이곳 아이슬란드 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무시무시한 계곡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 소리가 녹색 이끼 언덕에서 한가롭게 풀 뜯고 있는 양떼들의 애잔한 울음소리와 함께 어울려 더 이상 세상 저자거리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발밑의 작은 꽃들이 수줍게 미소를 보내며 다시 오라고 손짓한다. 최종 목적지 스코가 폭포에 이르니 그 모습이 장대하다. 저 산위에 내린 하얀 눈은 빙하로 앉아서 수만년 동안 바다를 연모한 모양이다. 역겹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빙하 아래로 땅속으로 녹아내리고, 계곡과 스코가 폭포를 넘어서 마침내 북해 깊은 바다로 돌아간다.

내게 왜 산에 가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지만 동떨어져 있기에 때때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리라. 마치 태어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처럼.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duouusa.net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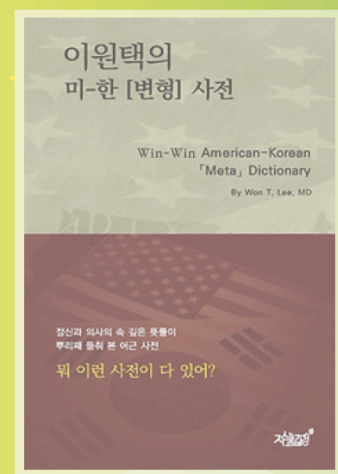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정신과 의사 (의대 '65)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

21세기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설식 풀이)를 통해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로 표기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IT 용어, 신조어·콩글리시 등 부록 22편
총 1236쪽 양장제본, 정가 35불

구매처: LA 반디서점
(213)739-8107, bandibookus.com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故고광선(공대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기준(법대54)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네바다 - 정상진(상대59)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김일영(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옥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필라델피아 - 신의석(공대53)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법대58)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용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나두섭(의대66)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중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신영찬(의대63)

심상은(상대54)
안병일(의대63)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중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효동(공대58)
벤자민 홍(문리53)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권영국(상대60)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배정희(사대54)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 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형(의대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홍지복(간호70)

워싱턴DC

공순욱(간호66)
방은호(약대43)
박평일(농대69)
서취원(의대 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선구(문리65)
이윤주(상대63)
최지원(의대61)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장병진(공대61)
정태(의대 5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욱(약대50)
한만섭(공대49)

시카고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미네소타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민홍기(문리61)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효숙(사대65)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오하이오

김용현(경원66)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현민(공대84)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코네티컷

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종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2.7.1 - 2023.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4.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법 58) 강동순(법 59) 강윤희(간 46) 강창만(의 58)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고윤석(공 62) 권기상(대 72) 김건진(문 62) 김경(문 63) 김경옥(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근(농 78) 김동산(법 59) 김명숙(농 58) 김문엽(농 83) 김범수(문 61)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석구(공 66) 김석홍(법 59) 김수향(간 68) 김순길(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법 58) 김영중(치 66) 김옥경(생 60)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일영(의 65) 김은숙(미 62) 김정(치 59) 김정호(농 59) 김종표(법 58) 김재영(농 62) 김진식(공 66) 김태환(문 78) 김학철(의 55) 나두섭(의 66) 노명호(공 61) 니승욱(문 59) 문경호(문 59) 문병길(문 61) 박영옥(사 55)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인창(농 65) 박종수(수 58) 박찬호(농 63)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희자(음 68)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백혜란(미 70) 서동영(사 60) 서치원(공 69)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신정연(미 61) 심재호(공 75) 양태준(상 56) 오윤표(음 56) 오선웅(의 63) 오찬수(약 57) 오형원(의 53)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음 63) 유이종(농 74) 윤경민(법 55) 윤석철(상 60) 윤희성(치 65) 이강훈(치 65) 이건섭(치 54) 이건일(의 62) 이덕승(의 54) 이미정(의 78) 이방기(농 59) 이범모(치 74) 이범식(공 61) 이서희(법 70) 이소희(의 61) 이영수(상 60) 이영현(간 70) 이원익(문 73) 이원택(의 71) 이장길(치 63) 이재룡(공 71)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종묘(간 69) 이진영(의 65) 이창무(공 54) 이채진(문 55) 이청광(상 61)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이홍표(의 58) 임낙균(약 64) 임دون(미 57) 임동호(약 55) 임창희(공 73)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기창(공 56) 장동석(문 66) 장소현(미 65) 장원경(미 73) 장인숙(간 70) 전낙관(사 60) 전원일(의 77) 전상욱(사 52) 정병혁(농 70) 정수만(의 66) 정연웅(상 63) 정인환(법 54) 정재형 정진우(의 66) 정형민(문 71) 정황(공 64) 조경애(음 64) 조상하(치 64) 조상호(농 51) 조선주(간 69) 주민희(음 51) 주정래(상 65) 지종근(농 56) 차중환(사 54) 최영구(상 61) 최영순(간 69) 최영지(미 62) 최용완(공 57) 최종권(문 59) 추교환(농 63) 한동수(의 60) 한성구(상 53) 한원민(의 59) 한중철(치 62) 한홍택(공 60) 한효동(공 58)	홍병각(문 55)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홍수웅(의 59) 황건홍(공 55) 황현상(의 55) 뉴욕 강에드워드(사 60) 계동휘(치 67) 고애자(음 57) 곽노섭(문 45) 권영국(상 60) 권문웅(미 61) 금영천(약 72) 김기택(수 81) 김동환(약 60) 김문경(약 61) 김병권(문 63) 김복영(간 69) 김세환(공 65) 김승호(공 71) 김영길(문 62) 김영수(법 66) 김영숙(약 53) 김영희(간 53) 김완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유순(간 64) 김정희(약 56) 김정희(간 69) 김현중(공 63) 리준무(음 65) 문석면(의 52) 박건이(공 60) 박상원(음 69) 박수안(의 59) 박순영(법 56) 박승화(간 69) 방준재(의 63) 배상규(약 60) 배정희(사 54) 서량(의 63) 서충선(사 57) 석창호(의 66) 선종철(의 57) 성기로(약 57) 손갑수(약 59) 손완배(농 70) 송근숙(간 66) 송기인(의 60) 신두식(의 58) 신응남(농 70) 신춘희(간 56) 안태홍(상 65) 안명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호(의 66) 오용환(약 68) 우규환(사 60) 우상영(상 59) 원인순(문 67) 유재섭(공 65) 윤병남(사 62) 윤영섭(의 57) 윤인숙(간 63) 윤철(문 54) 윤희정(문 59) 이강홍(상 60) 이명중(공 72) 이상근(경 84) 이상무(의 56) 이영재(사 58) 이정은(의 58)	이재덕(법 60) 이재진(의 59) 이태봉(의 56) 이해청(약 62) 이형근(수 60) 전성진(사54) 정해민(법 55) 조남천(사 59) 조득환(의 61) 조중수(공 64) 차국만(상 56) 최영태(문 67) 최정웅(시 63) 최한용(농 58) 최혁(음 72) 최형무(법 69) 한병용(문 71) 한승순(간 70) 허선형(의 58) 허영자(약 63) 허용웅(상 63) 허유선(생 83) 현건섭(공 55) 이강우(문 59) 홍정표(음 67) 홍종만(공 64) 뉴잉글랜드 김경일(공 58) 김기남(간 67) 김선혁(약 59) 김형범(문 57) 박영철(농 64) 박종건(의 56) 송미자(농 62) 윤영자(미 60) 이강원(공 66) 이규진(약 60) 정선주(간 68) 주창준(의 50) 최선희(문 69) 네바다 김택수(의 51) 이학은(약 57) 정상진(상 59) 룩키마운틴스 위장호(의 67)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문성민(공 88) 변우진 송세진(치 78) 송창원(문 53) 이창재(문 51) 주한수(수 62) 미시간 김우신(의 60) 김재석(의 61) 김정화(음 56) 김희주(의 62) 고선희(문 63) 남성희(의 56) 신동화(문 55) 오동환(의 65) 윤효훈(의 63) 이민우(의 61) 이성길(의 65) 이재승(의 55) 장철(의 65) 조문희(공 56) 조영현(음 95)	주명순(간 64) 하계현(공 64) 북가주 강윤희(간 72) 강재호(상 57) 강정수(문 61) 권오형(사 61) 김기덕(문 74) 김정희(법 56)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음 64) 박경용(약 63) 박서규(법 56) 박중성(법 53) 부영무(치 72) 손창순(공 69) 송영훈(상 57) 신규영(공 64) 안호삼(문 58)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이강우(문 59) 이성원(공 65) 이성형(공 57) 이은수(사 64) 이장우(문 72) 이정남(공 63) 임정란(음 76) 전병련(공 54) 정춘임(간 67) 정한규(의 63) 천동우(공 63) 최경선(농 65) 한상봉(수 67) 황동하(의 65) 황만익(사 59) 샌디에고 오계환(공 64) 윤진수(의 57) 이문상(공 62) 이휘영(법 59) 시카고 김갑중(의 57) 김규호(의 58) 김동희(공 66) 김사직(상 59) 김성일(공 68) 김승주(간 69) 김용주(공 69) 김현주(문 61) 노영일(의 62) 박정일(의 61) 박창욱(공 56) 소진문(치 58) 송재현(의 46) 신석균(문 54) 안신훈(농 61) 안영학(문 57) 안창현(의 55) 오명자(간 60) 윤경순(사 61) 이덕수(문 58) 이동균(공 75) 이소희(간 68) 이승자(사 60) 이시영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故 이윤모(농 57) 이종일(의 65)	임영신(의 56) 임현재(의 59) 정승규(공 60) 정연학(공 63) 최대한(의 53) 최혜숙(의 53) 최희수(문 67) 한재은(의 59) 황치홍(문 65) 알래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한영준(사 60) 최용성(의 55) 오하이오 김태웅(의 61) 송용재(의 63) 유태영(공 57) 워싱턴 고무환(법 57) 권정도(치 63) 권철수(의 68) 김동훈(법 56) 김명자(법 52) 김명철(공 60) 김용덕(의 53) 김윤호(공 64) 김용환(치 88) 김해식(공 59) 김희주(의 62) 나연수(사 54)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일영(문 59) 박홍우(문 61) 서윤석(의 62) 석균범(문 61) 양광수(공 73) 오광동(공 52) 오인환(문 63) 우관혜(음 63) 우제형(상 54) 원종민(약 57) 유달(의 61) 유영준(의 70) 유정식(수 60) 유홍열(문 74) 이건형(수 54) 이규양(문 62) 이내원(사 58) 이선구(문 65) 이성배(수 57)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영목(공 59) 이윤주(상 63) 이재승(의 55) 이종국(의 52) 이준영(치 74) 이해청(약 62) 장윤희(사 54) 정원자(농 62) 조영희(문 66) 조화윤희(문 61) 천건희 최경수(문 54) 최동호(문 68) 최재귀(미 63) 한익생(수 60)	홍영석(공 58) 황보한(공 56) 워싱턴주 김인배(수 59) 김재호(상 54) 김재훈(공 72)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양용관(수 62) 윤석진(문 64) 이길송(상 57) 이원섭(농 77) 이희백(의 55) 장대홍(공 65) 전병택(상 65) 정영자(사 56) 유타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기춘(공 61) 김영서(상 54)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한순(농 56) 서광모(공 65) 송용덕(의 57) 오경호(수 60) 이종석(의 54) 임수암(공 62) 임한응(공 60) 정선희(공 65) 캐롤라이나 김기현(문 52) 이종영(음 58) 한광수(의 57)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라찬국(의 57) 신경호(의 57) 최창송(의 52) 홍성휘(공 56) 콜로라도 이정화(의 61) 테네시 김경덕(공 75) 텍사스 김장환(공 81) 박유미(약 62) 박태우(공 64) 송요한(문 73) 유희(농 56) 윤영주(문 60)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천양곡(의 63)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동한(문 53) 김성준(의 55) 박창익(농 64) 오석일(의 64)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필라델피아 김경희(생 71) 김순주(치 95) 김영우(공 55) 김정현(공 68) 김재술(상 58)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배성호(의 65) 서종민(공 64) 성기호(상 59) 성정호(약 59) 손재욱(생 77) 송성균(공 50) 신선자(사 60) 신성식(공 56) 안세현(의 62) 오진석(치 56) 윤경숙(문 59) 윤정나(음 57) 이규호(공 56) 이만택(의 52) 이문호(공 53) 이성숙(생 74) 정덕준(상 63) 조영호(음 54) 조정현(수 58) 조화연(음 64) 지홍민(수 61) 최종무(상 63) 최현태(문 62) 한동휘(문 57) 하와이 김달욱(사 45) 김용진(공 50) 안은식(문 55) 하인환(공 56) 최경윤(사 51)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오태호(의 56) 정민재(농 70) 최은관 휴스턴 김영일(의 55) 박석규(간 59) 최관일(공 54) 최성호(문 58) 최용현(의 53)
---	--	---	---	---	--	--	--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illegible]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_	☐ \$100 (2022.7 - 2023.6) ☐ \$200 (2022.7 - 2024.6) ☐ \$3,000(종신이사회비)	☐ \$240 (2022.7 - 2023.6) ☐ \$480 (2022.7 - 2024.6)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_

Total: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l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usa30@gmail.com



서예반 모집

지도: 정인환(법대 54)

일시: 매주 화 10AM~12PM
장소: 작가의 집 동리홀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오늘까지 일구어온 모든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엔 더 가슴 뛰는 이야기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귀하의 가문만을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합니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영속적 가문 자산관리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웰씨앤와이즈 패밀리오피스

Next Generation Education
다음세대 교육

Investment Strategy
투자전략

Concierge
컨시어지

Philanthropy
필란트로피

 Wealthy & Wise

■ Baltimore ■ Honolulu ■ Seoul
■ 410.469.9532 ■ 345 N. Charles St, Baltimore, Maryland
■ 808.427.8434 ■ 1003 Bishop St, Suite 2700, Honolulu, Hawaii
■ www.wnwinc.co.kr ■ info@wnwinc.co.kr
■ 이태영 (법학과 60) 웰씨앤와이즈 설립자, 상임고문
■ 박상우 (경영전문대학원 06) 웰씨앤와이즈 한국법인 대표이사



한국 재산과 미국 재산 상속을 오랜 경험의 상속법 전문 이종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국 재산상속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주법을 알아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미국에서 한국 재산과 미국 재산의 유언장 작성
- * 미국 재산 리빙트러스트 작성
- *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 * 한국 상속세 절세
- * 한국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절세



이종건(경영대 84)

JKLAWUSA, A PROFESSIONAL CORPORATION
한미국제법률사무소

USA 3435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787-3107 Fax. (714) 494-7649

Korea Hanmi International Law Firm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길 11, 310호(역삼동, 한화진넥스빌)
Office. 02-561-9797 Fax. 02-561-9696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문화 광고국장: 홍선례(음)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이준수(공)
장민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ua.org	웹사이트 www.snuua.org
------------------	--------------------	--------------------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차기 회장 김경무(공대68)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범섭(공 79)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이명자(간호 74) T: (206)218-8887
drimalee@gmail.com

차기 회장 하혜숙(간호 77) T: (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룩키타운티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236)513-0376
p21.snuainvan@gmail.com
sphro17@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융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lim@yahoo.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회(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이종태(사대 71) T: (267)266-2881
leejt153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희(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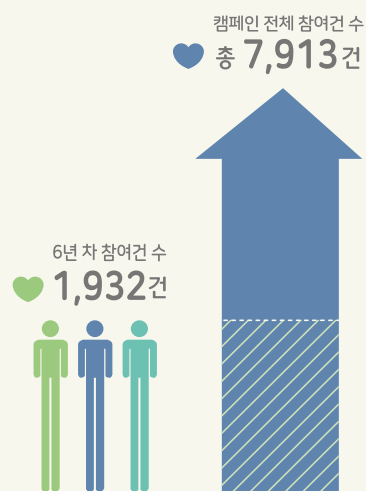


만만한 기부, 여섯 번째 이야기

2016년에 시작한 만만한 기부가 여섯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만만한 기부 기부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제공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생활비 지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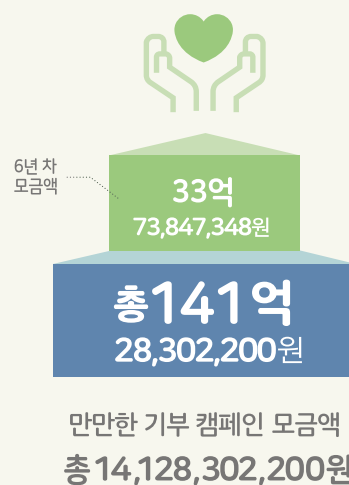
참여자 수

선한 인재 장학금에
지난 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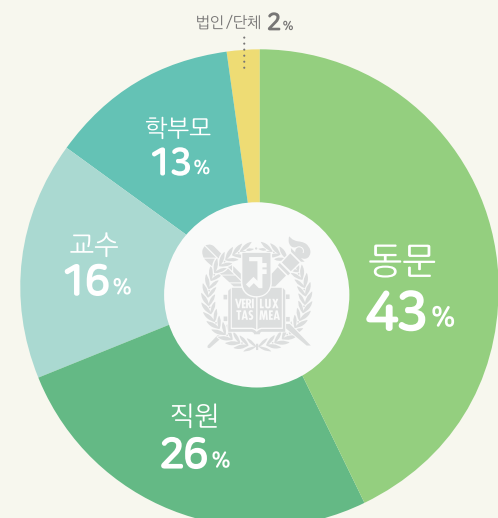
모금액

많은 성원에 힘입어
기부 금액이 140억 원이 넘었습니다



본교 관계에 따른 참여율

동문, 교수, 학부모, 직원들의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만만한 기부 수혜학생 이야기 선한 인재 장학생 감사편지 발췌(2021)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을 바탕으로 꿈을 펼치고 학습을
이어가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은 후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인 만큼, 저 역시 책임감을 갖고 장학금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자라는 제 꿈을 향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는 것

입학했을 때부터 쭉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지원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만약 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 하나를 더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america@snu.ac.kr 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MMH-09]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정금액: _____

Pay to the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group.cpa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Fax +82-2-872-4149 E-mail snuf@snu.ac.kr

차민영(의대 76)

멋진 인생 시니어! 제2의 인생 항해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뷰
아름다운 시니어

건강하고 멋진 시니어 인생은
저 이순재와 함께
아름다운 항해로 시작하십시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시니어 분들의 인생 항해에
함께 하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시니어 배우 이순재